
- 충남 특성화고교 운영 활성화 방안 -
의 정 토 론 회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충남 특성화고교 운영 활성화 방안 -

「 의 정 토 론 회 」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충청남도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I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 11. 23.(목) 14:00 ~ 16: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303호 회의실
- 주 제 : 충남 특성화고교 운영 활성화 방안
- 주 최 : 충청남도의회(기획경제위원회)
- 참석예정 : 50여명(도의원, 학계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도민 등)

< 토론 참여자 >

좌 장 ■ 이종화(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제자
(1명)** ■ 임수빈(합덕고등학교 교감)

**토론자
(4명)**

- 박병규(한국K-POP고등학교 교장)
- 김종오(홍성공업고등학교 교장)
- 공정희(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 정범모(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교사)

※ 사회 :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II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0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 사회자 :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14:05~14:10	05'	내빈소개 및 개회사	이종화 의원
< 토 론 회 > ※ 진행 : 이종화 의원			
14:10~14:30	20'	주 제 발 표	· 발제자 : 임수빈(합덕고등학교 교감)
14:30~15:10	40'	지 정 토 론	· 토론자 4명(각 10분)
15:10~15:30	20'	자 유 토 론	· 발제자, 토론자
15:30~15:50	20'	청 중 토 론	· 참여자 전체
15:50~16:00	10'	정 리 및 폐 회	· 좌 장(이종화 의원)

III

세부 진행계획

1 개회 및 국민의례(14:00 ~ 14:05 /05')

- 사 회 자 :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 국 민 의 례 : 국기에 대한 경례 (녹음반주)

2 내빈소개 및 개회사(14:05 ~ 14:10 /05')

- 주요 내빈소개(사회자)
 - 참석 도의원, 집행부 간부, 기타 내빈 등 소개
- 개회사(이종화 의원)

3 주제 발표(14:10~14:30 /20')

- 임수빈(합덕고등학교 교감)

4 지정 토론(14:30~15:10 /40')

- 발표순서 ※ 토론자 1명당 10분 정도 발표

박병규 (한국K-POP고등학교 교장)



김종오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장)



공정희 (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정범모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교사)

※ 추진과정에서 토론자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5 자유 및 청중 토론(15:10~15:50 /40')

- 발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 ⇒ 패널 상호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 방청객 자유 토론: 방청객 2~3명 정도
 - ⇒ 질문자 마이크 제공

6 정리 및 폐회(15:50~16:00 /10')

- 진행자 마무리 발언 후 폐회
 - ※ 토론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 발제자 및 토론자 마무리 발언
- 폐회 인사(좌장)

목 차

■ 주제발표

- ☞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임수빈(합덕고등학교 교감) 1

■ 지정토론

- ☞ 취업전략과 특성화고등학교의 활로 모색
박병규(한국K-POP고등학교 교장) 27
- ☞ 2023 충청남도 의정토론회 충청남도 특성화고 발전 방안
김종오(홍성공업고등학교 교장) 37
- ☞ 충남 특성화고 운영 발전방안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
공정희(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65
- ☞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교육환경 변화와 활성화 방안
정범모(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교사) 71

주제발표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2023. 11. 23.

합덕고등학교 임수빈

차 례



1. 특성화고 현황

2. 특성화고의 문제점

-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
- 취업률 저조
-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전문교과 교사의 사기 저하

3. 특성화고 발전방안

- 신산업분야 학과개편
- 직업계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 거점 특성화고 추진
- 지역기반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 다문화,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 직업계고 해외현장학습 활성화
- 직업교육 인식개선
- 전문교과 교사에 대한 지원강화
- 정부의 직업계고 지원정책 강화

충남지역 특성화고 현황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직업계 고등학교 정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 마이스터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 특성화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 ▶ 일반고 중 특성화계열 학과를 동시에 운영하는 고등학교(구 종합고)

충남지역 특성화고 현황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직업계고 총괄 현황

구 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계
	농업	농공	농공상	수산 해양	공업	상업 정보	가사 실업	문화 예술		농업	농상	상업	
학교수	2	1	1	1	8	12	2	1	5	1	1	3	38
계	28								5	5			

● 학생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합 계	183	3,887	188	3,545	193	3,663	564	10,843

충남지역 특성화고 현황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직업계고 계열별 현황

구분	농·해양	공업	상업정보		가사실업/문화예술	계
특성화고	천안제일고 공주생명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주산산업고(농공) 금산산업고(농공상)	부여전자고 장항공업고 논산공업고 천안공업고 홍성공업고 금산하이텍고 예산전자공업고 서산공업고	공립	사립	병천고 성환고 한국K-POP고	28
			당진정보고 강경상업고 대전여자상업고 충남인터넷고 부여정보고 충남드론항공고	천안여자상고 천안상업고 논산여자상업고 서천여자정보고 공주정보고 예산예화여고		
마이스터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	합덕제철고 공주마이스터고 연무마이스터고 아산스마트팩토리고				5
종합고	서산중앙고(농)		청 양 고(농상)	온양한울고(상) 태안여자고(상) 삼교고(상)		5
계	7	12	16		3	38

문제점 1.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최근 5년간 충남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평균)

구분	신입생 충원율(평균)					5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마이스터고	100.0%	100.0%	100.0%	97.7%	100.0%	99.5%
특성화고	88.6%	89.0%	89.5%	89.1%	92.8%	89.8%

● 최근 3년간 학교별 충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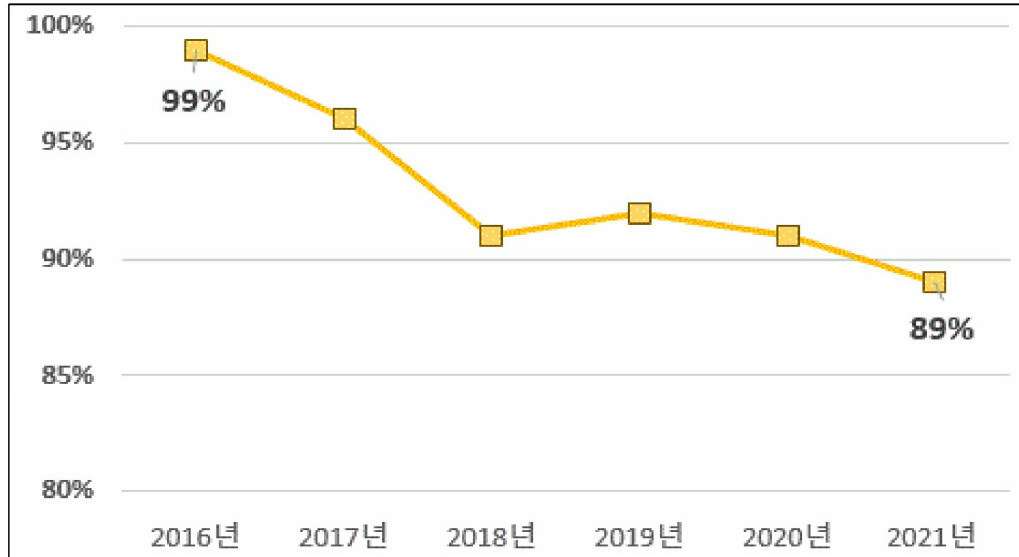
- 마이스터고 : 5교 모두 안정적으로 충원하고 있음(4교는 100% 충원)
- 특성화고
 - 3년간 100% 충원교 : 4교(병천고, 논산여상, 서천여자정보고, 충남드론항공고)
 - 3년 연속 미충원교 : 9교
- 인문고 특성화계열: 5교중 4교는 3년간 100% 충원

문제점 1.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전국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을 변화



문제점 1.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최근 3년간 충남 직업계고 학교별, 지역별 충원을 세부내역

순	유형	지역	학교명	구분	2021년도 신입생			2022년도 신입생			2023년도 신입생		
					정원	신입생 수	충원율 (%)	정원	신입생 수	충원율 (%)	정원	신입생 수	충원율 (%)
1	마이스터고	아산		공립	110	110	100%	80	80	100%	80	80	100%
2	마이스터고	공주		공립	64	64	100%	64	64	100%	64	64	100%
3	마이스터고	논산		공립	80	80	100%	80	72	90%	80	80	100%
4	마이스터고	당진		공립	80	80	100%	80	80	100%	80	80	100%
5	마이스터고	부여		공립	48	48	100%	48	48	100%	48	48	100%
6	특성화고	천안		공립	138	138	100%	144	144	100%	150	150	100%
7	특성화고	천안		공립	132	97	73%	120	120	100%	120	120	100%
8	특성화고	천안		공립	322	322	100%	336	318	95%	336	336	100%
9	특성화고	천안		사립	276	264	96%	288	272	94%	300	300	100%
10	특성화고	천안		사립	276	276	100%	288	239	83%	264	264	100%
11	특성화고	천안		공립	207	146	71%	168	143	85%	168	168	100%

문제점 1.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순	유형	지역	학교명	구분	2021년도 신입생			2022년도 신입생			2023년도 신입생		
					정원	신입생수	충원율(%)	정원	신입생수	충원율(%)	정원	신입생수	충원율(%)
12	특성화고	논산		공립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4	94%
13	특성화고	논산		공립	140	108	77%	140	93	66%	140	95	68%
14	특성화고	논산		사립	140	140	100%	140	140	100%	140	140	100%
15	특성화고	논산		공립	60	53	88%	60	46	77%	60	43	72%
16	특성화고	보령		공립	120	83	69%	120	88	73%	100	78	78%
17	특성화고	보령		공립	80	47	59%	80	70	88%	80	58	73%
18	특성화고	보령		공립	80	79	99%	80	80	100%	80	80	100%
19	특성화고	공주		공립	140	64	46%	100	83	83%	100	89	89%
20	특성화고	공주		사립	80	80	100%	80	72	90%	80	57	71%
21	특성화고	서산		공립	120	120	100%	132	132	100%	132	117	89%
22	특성화고	당진		공립	216	216	100%	225	205	91%	225	203	90%
23	특성화고	예산		사립	120	120	100%	120	117	98%	120	120	100%
24	특성화고	예산		공립	120	82	68%	120	57	48%	80	80	100%

문제점 1.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순	유형	지역	학교명	구분	2021년도 신입생			2022년도 신입생			2023년도 신입생		
					정원	신입생수	충원율(%)	정원	신입생수	충원율(%)	정원	신입생수	충원율(%)
25	특성화고	부여		공립	40	17	43%	40	29	73%	40	23	58%
26	특성화고	부여		공립	80	65	81%	80	46	58%	60	52	87%
27	특성화고	서천		사립	60	60	100%	60	60	100%	60	60	100%
28	특성화고	서천		공립	60	59	98%	60	39	65%	60	29	48%
29	특성화고	금산		공립	60	53	88%	60	53	88%	60	60	100%
30	특성화고	금산		공립	60	46	77%	60	51	85%	60	60	100%
31	특성화고	홍성		공립	60	60	100%	60	60	100%	60	60	100%
32	특성화고	홍성		사립	42	38	90%	42	42	100%	42	42	100%
33	특성화고	홍성		공립	60	59	98%	60	47	78%	60	54	90%
34	종합고	아산		사립	50	50	100%	50	50	100%	50	50	100%
35	종합고	예산		사립	20	20	100%	20	20	100%	20	20	100%
36	종합고	청양		공립	60	60	100%	60	59	98%	60	49	82%
37	종합고	서산		공립	80	80	100%	88	88	100%	88	88	100%
38	종합고	태안		사립	80	80	100%	40	40	100%	40	40	100%

문제점 2. 취업률 저조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충남 직업계고 취업률 현황

학년도	졸업생	취업학생수	취업률(%)
2022(23.3.1 기준)	3,680	1,224	35.5
2021(22.4.1 기준)	3,758	1,235	34.3

● 계열별 취업률 현황

순	계열	2021학년도(%)	2022학년도(%)
1	농수산계열	27.9	33.7
2	공업계열	46.3	44.4
3	상업계열	27.8	29.9
4	가사 및 종합계열	34.4	35.5

문제점 2. 취업률 저조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계열별, 학교별 취업률 세부현황

계열	학교명	현원	23.3.1. 기준	
			취업인원	취업률(%)
농수산		135	33	30.0
		102	29	30.9
		103	20	20.0
		54	12	23.1
		55	49	89.1
		53	22	47.8
		60	11	18.3
		76	23	31.5
계	소계	638	199	33.7

계열	학교명	현원	23.3.1. 기준	
			취업인원	취업률(%)
공업		333	111	33.7
		98	39	42.9
		85	30	57.7
		52	22	43.1
		74	63	87.5
		107	38	44.2
		45	19	44.2
		59	21	36.8
		20	9	45.0
		116	13	16.0
		87	61	72.6
		67	30	49.2
계	소계	1143	456	44.4

문제점 2. 취업률 저조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계열	학교명	현원	23.3.1. 기준	
			취업인원	취업률(%)
상업		75	24	33.8
		55	8	15.7
		49	10	31.3
		111	30	27.0
		59	18	31.0
		205	19	9.6
		292	111	42.2
		309	109	35.3
		59	19	32.2
		127	36	28.3
		22	11	50.0
		107	25	23.4
계	소계	1470	420	29.9

계열	학교명	현원	23.3.1. 기준	
			취업인원	취업률(%)
가사 및 종합		145	85	59.0
		114	28	25.9
		37	2	5.4
		51	24	47.1
		65	8	12.3
		17	3	17.6
계	소계	429	149	35.5

문제점 3.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특성화고는 중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
- 학교폭력 사안이 많이 발생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학교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학생이 많은 학교
- 급변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지 못하는 학교
- 대학진학에 불리한 학교
- 고졸 취업후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 일반고 중심의 교육정책은 많으나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인식



문제점 4. 전문교과 교사의 사기 저하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위기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부담
- 신입생 유치, 취업처 발굴, 취업학생 추수지도 등으로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시간 부족
- 학과개편,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교혁신에 대한 피로감
- 직업계고의 각종 사업추진으로 인한 업무 부담
- 신산업 분야 학과개편시 교원양성 대학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전공교과와 불일치
- 학교 설명회시 중학교에서의 관심 부족, 업무협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가중
- 인사이동시 시군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가 불안정함
- 전공관련 학과 폐과시 과원교사가 되어 신분이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상주

발전방안 1.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학과개편 방향 / 기관별 역할



•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학과개편 추진



• 학과개편 추진 계획(과목변경, 교원수급, 시설 등) 수립 및 신청



• 분야별 산업현장 및 교육과정 전문가 위원 위촉
• 서면 및 대면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학과 선정



• 절차적 타당성(교육과정 변경 여부, 이해관계자 동의 등) 검토
• 차년도 보통교부금 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보통교부금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전방안 1.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최근 5년간 학과개편 현황

연도	학과개편 현황	개편 학과	지원액(억원)
2019	7교 11과 22학급	드론테크과, 자동차과, K-POP공연예술과, 자동차과 등	22
2020	7교 13과 25학급	스마트팜과, 항공기계과, 소방안전과, 스마트팩토리과 등	45
2021	6교 11과 16학급	치유농업과, 매킨로닉스과, 미래자동차과 등	103
2022	6교 9과 15학급	IoT소프트웨어과, IoT디바이스제어과, 도시공간건설과 등	40
2023	5교 7과 15학급	IoT기계과, 철강로봇융합과, AI빅데이터과 등	37
계		49교 85과 158학급	301

발전방안 1.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2023년 학과개편 세부 현황

설립별	학 교 명	학과개편		신입생 모집
		현재(학급)	개편(학급)	
공립	장항공업고	기계과(2)	IoT기계과(2)	2025년 3월
		전기과(1)	신재생에너지과(1)	
공립	대천여자상업고	금융회계과(2)	콘텐츠마케팅과(2)	
		유통판매과(1)	세무예셋과(1)	
공립	합덕제철고	철강기계과(4)	철강로봇융합과(5)	
		철강자동화과(1)		
사립	천안여자상업고	금융정보과(2)	AI빅데이터과(2)	
사립	태안여자고	정보처리과(2)	미디어콘텐츠과(2)	
합계	5교	7과	15학급	

발전방안 1.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학과개편 후 지원 사항



발전방안 2. 직업계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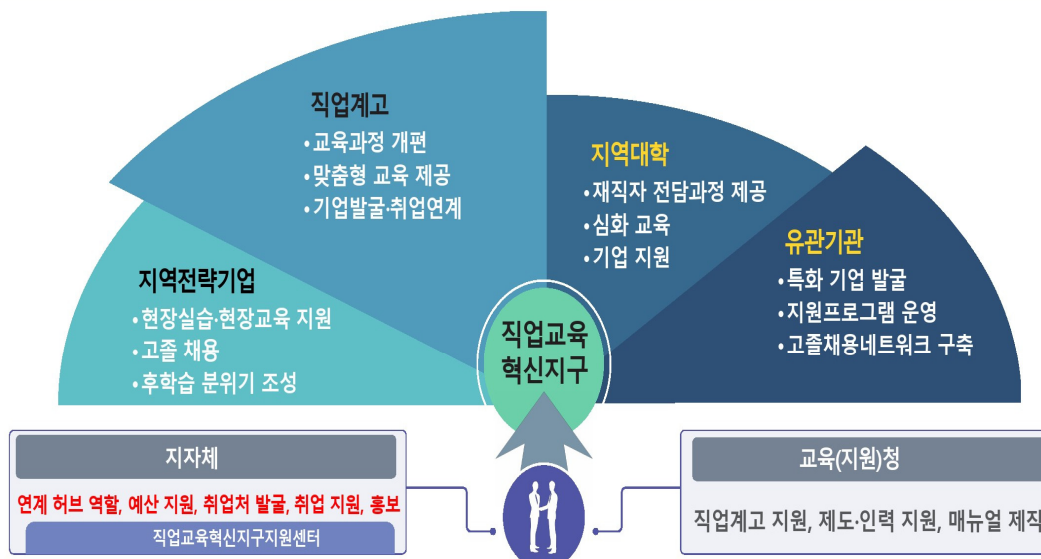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 대학'이 협력하고 '지자체-교육청'이 지원하는

지역기반의 체계적인 중등직업교육 모델 마련 -> **지역정착 경향성이 높은 직업계고 육성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주 유도**



발전방안 2. 직업계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역 주력 전략사업

천안 :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 기계, 자동차부품,

당진 : 철강, 미래에너지에 특화된 전문 산업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기술 인재 육성을 지원



참여
학교

천안공업고, 천안제일고, 천안상업고, 천안여자상업고, 병천고, 성환고,
아산스마트팩토리고, 당진정보고, 합덕제철고



참여
대학

한국기술교육대, 공주대, 백석대, 신성대, 세한대,
충남산학융합원(호서대)



참여
기업

반도체, 스마트기계, 관광, 서비스, 스마트공장, 철강 관련 업체 등

발전방안 2. 직업계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직업계 고교생 지방직 공무원 채용 확대

· 직업계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과 협력 추진

- 직업계고 학생의 자자체 공무원 선발 임용임원 확대, 공공기관 고졸채용 목표제 도입

- **상업계열 직종 추가 선발 필요**

2022년 충남도청 지방직 공무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임용현황

구분	공업		시설		해양수산		농업	계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토목	건축	일반수산	선박해양	일반농업	
인원	1	2	12	10	2	1	2	30

발전방안 3. 거점 특성화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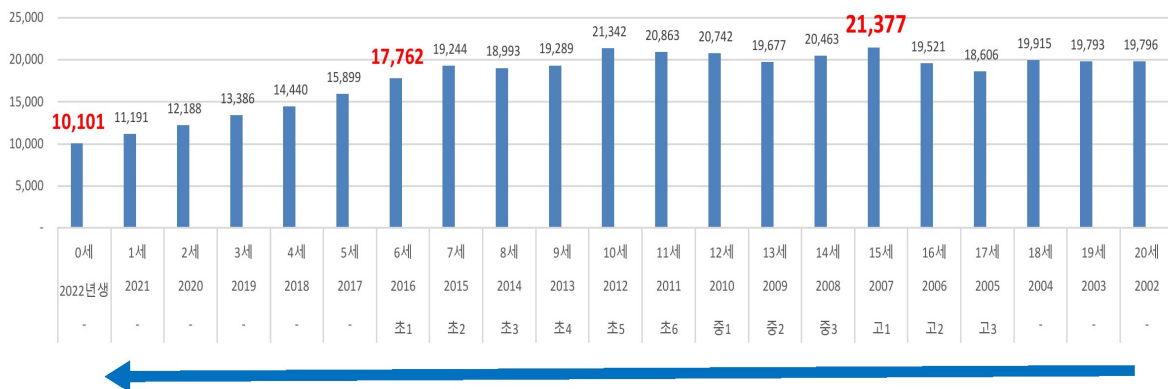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 소규모 직업계고의 거점 특성화고 통폐합 추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 거점특성화고 지원 규정 신설 추진 예정(교육부)
-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에 따른 충남 특성화고 학급감축 기준, 통폐합 기준 설정

충남 학령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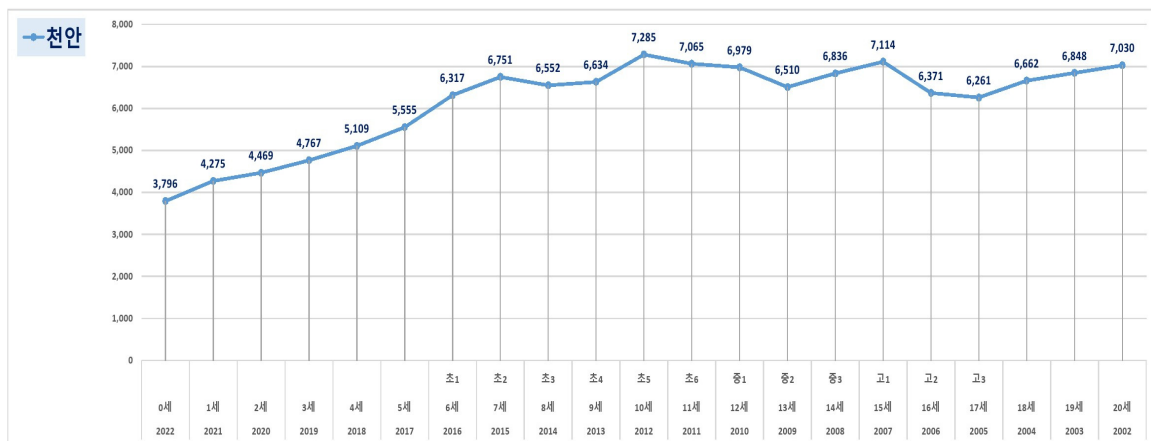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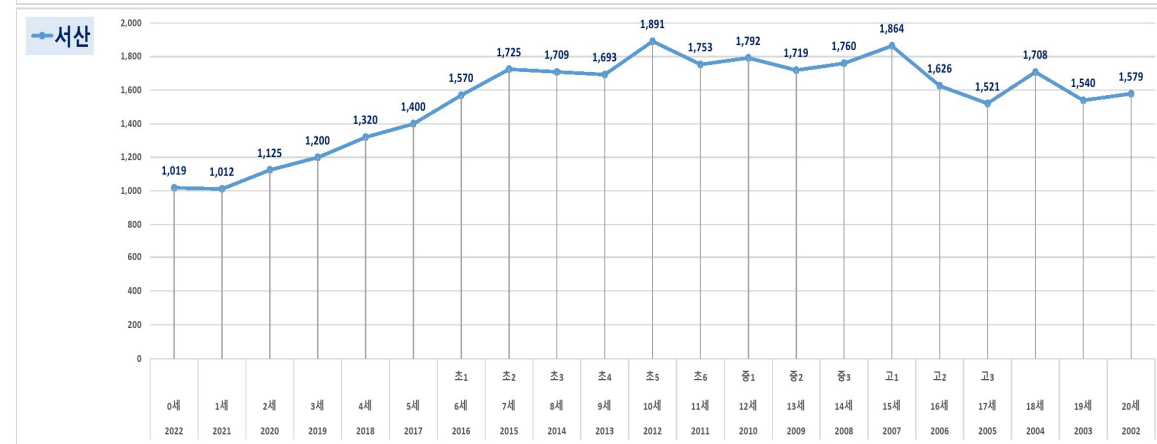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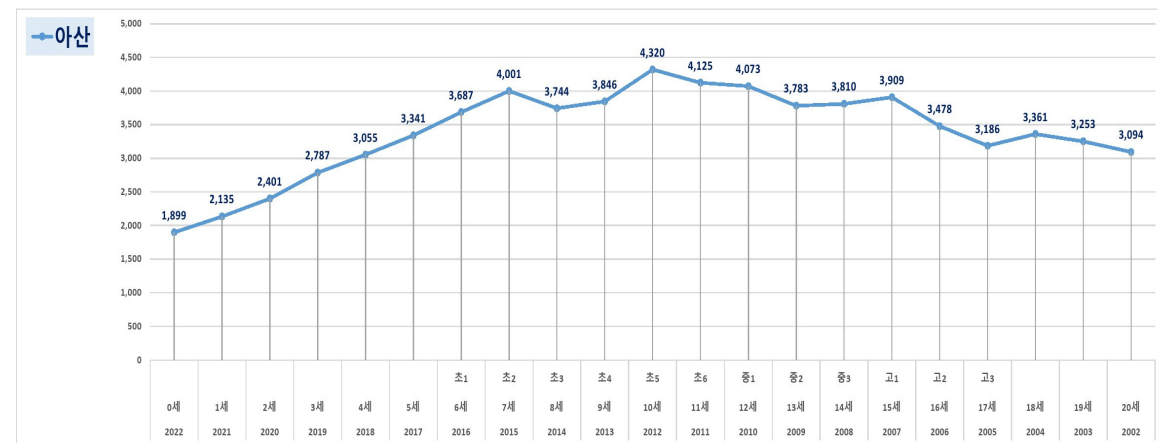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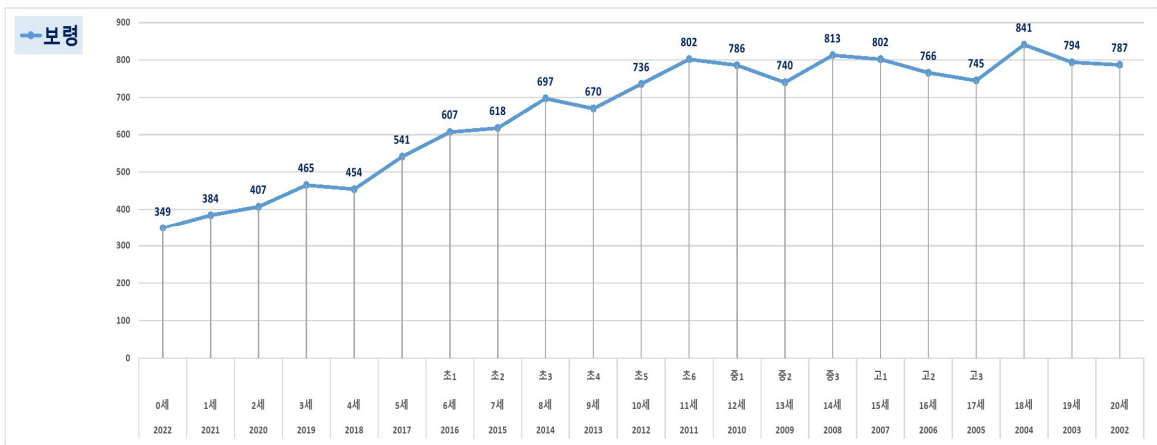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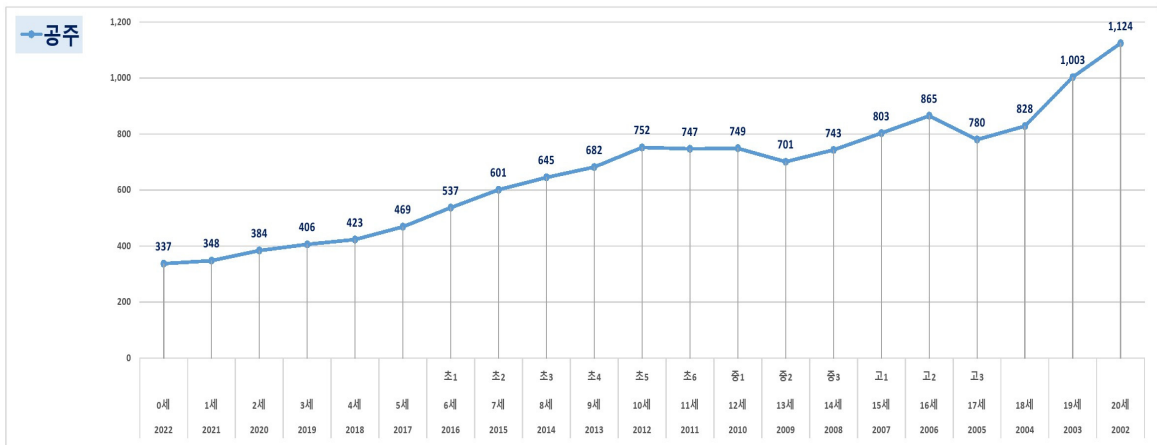
발전방안 3. 거점 특성화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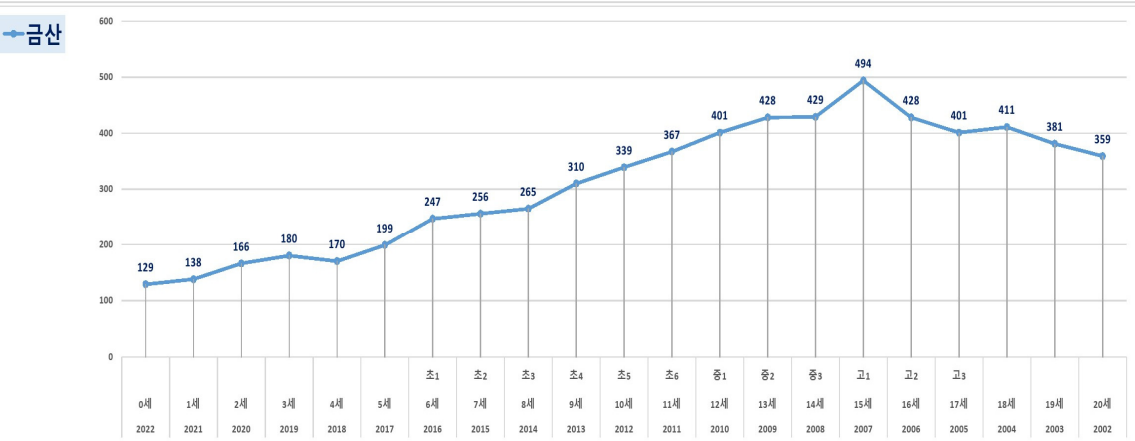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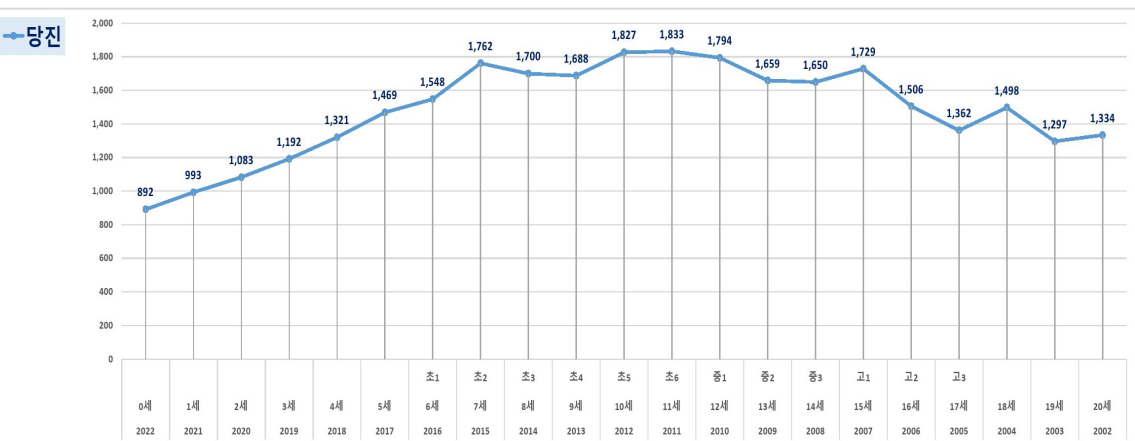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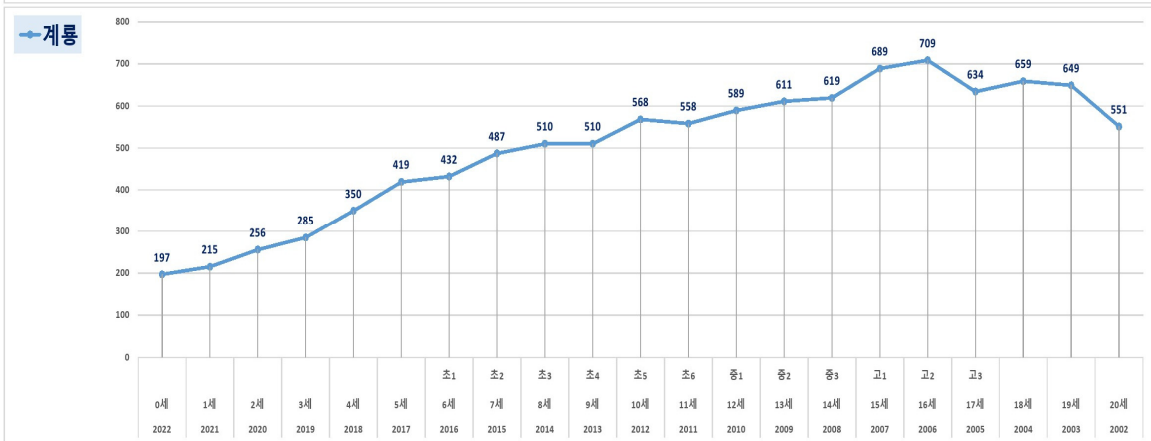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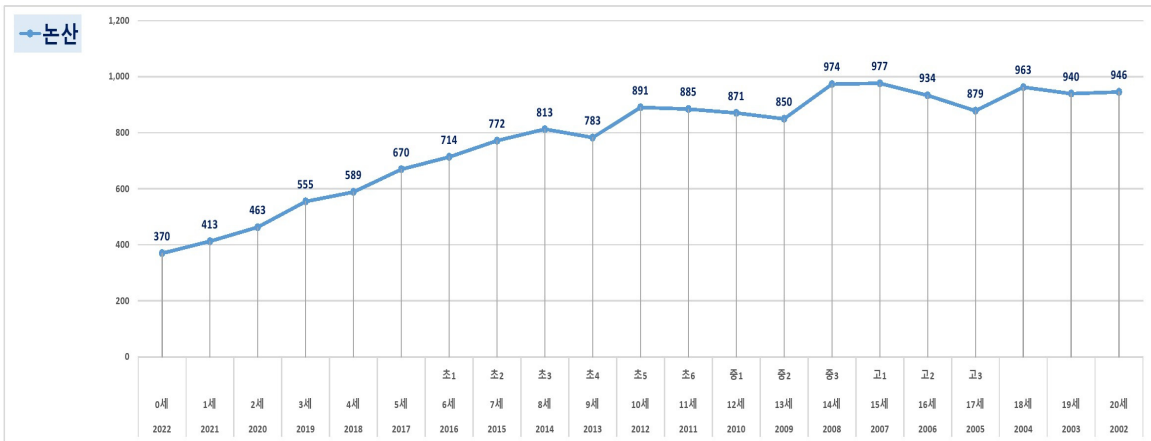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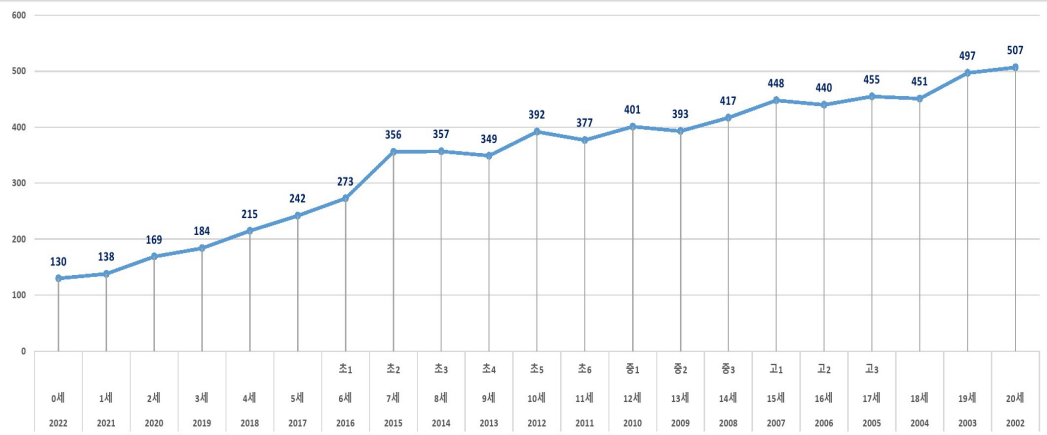
충남 시군별 학령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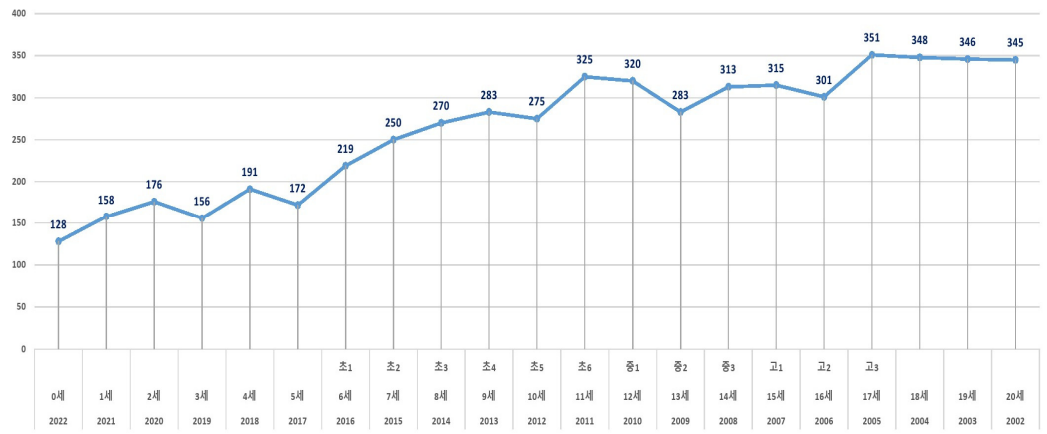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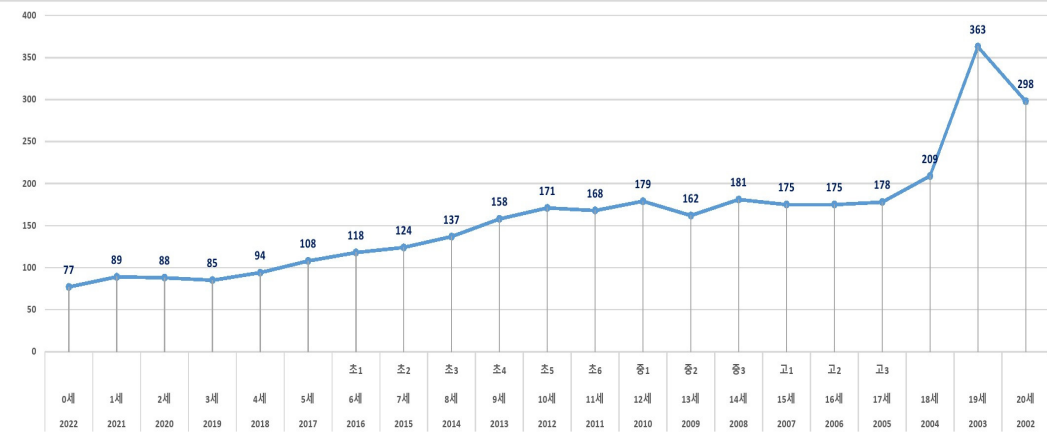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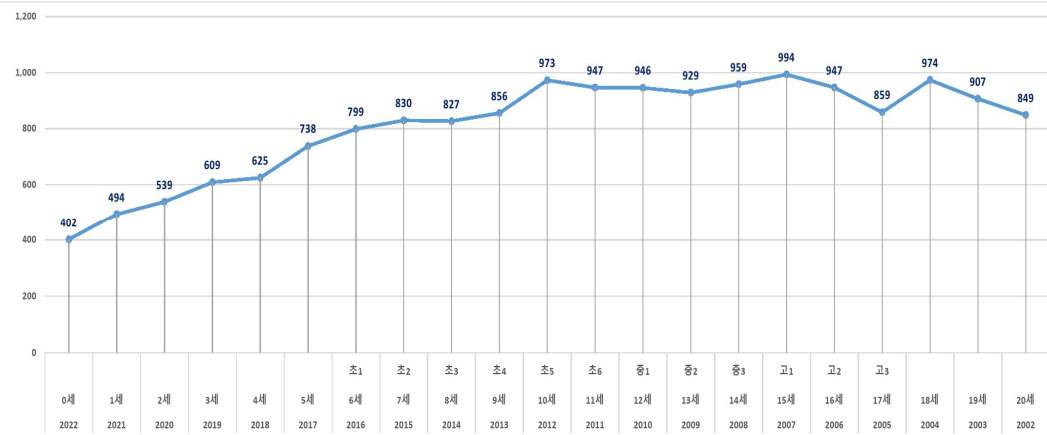
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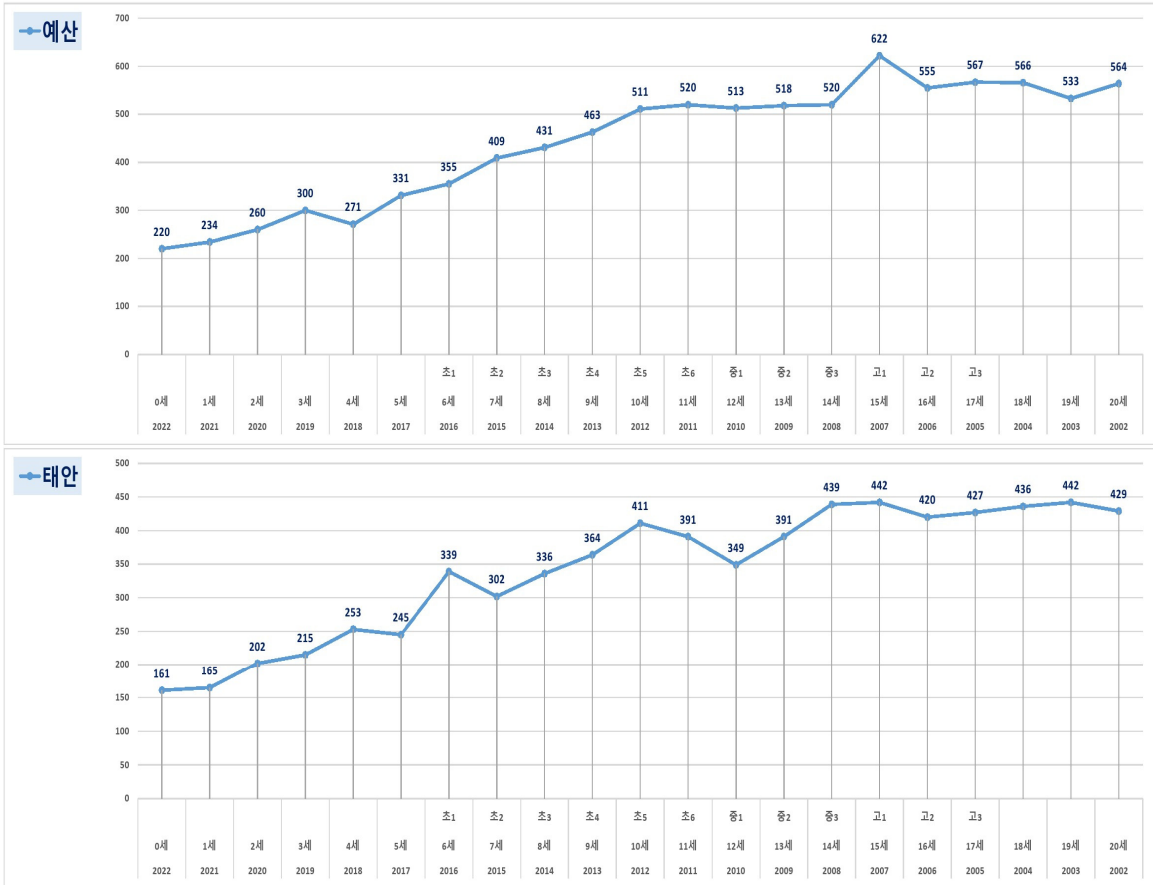


청양



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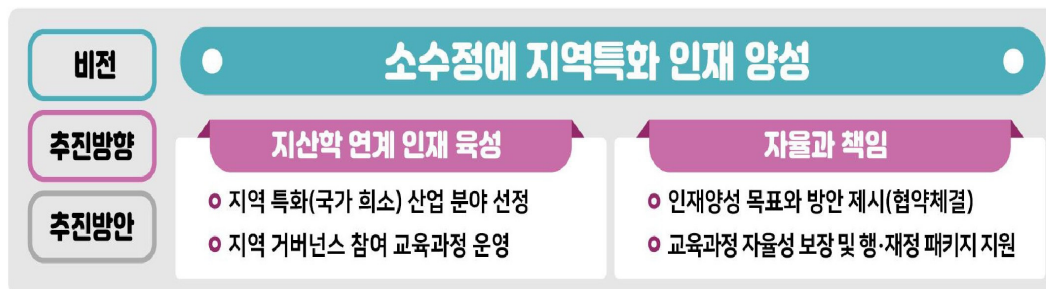
발전방안 4. 지역기반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지역기반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교육부 정책)

-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하지만 특수(희소)한 산업분야 혹은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위한 소수 정예 학교 도입
- 전국 35개교 육성 예정(교육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2023.8.24.)
- 지자체-교육청-지역(산업)SC- 특성화고 등이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 체결
-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과정 운영 및 인재육성을 위한 자율권을 갖고,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우선 지원



발전방안 5. 다문화,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충남 시군별 다문화 학생수(2023년)

지역	전체 학생 수	다문화학생 수					다문화학생 비율(%)
		초	중	고	각종	계	
천안	80,215	1,783	624	369	23	2,799	3.49
공주	9,351	394	199	114	0	707	7.56
보령	7,963	276	126	45	0	447	5.61
아산	45,485	1,909	647	248	4	2,808	6.17
서산	19,556	648	234	88	0	970	4.96
논산계룡	17,321	543	278	204	0	1,025	5.92
당진	19,306	631	277	106	0	1,014	5.25
금산	3,799	256	152	93	0	501	13.19
부여	4,210	296	146	45	0	487	11.57
서천	3,620	163	70	40	0	273	7.54
청양	1,876	153	76	39	0	268	14.29
홍성	10,258	321	145	61	0	527	5.14
예산	7,046	290	118	80	0	488	6.93
태안	4,238	179	75	23	0	277	6.54
합계	234,244	7,842	3,167	1,555	27	12,591	5.38

발전방안 5. 다문화,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다문화 학생 취업지원 특화학교 육성

- 충남 도내 다문화학생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예비 학교, 중점학교, 연구학교 등) 운영은 초·중학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중학교 졸업 후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진로교육의 부재로 특기,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거리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중도포기 학생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특성화고에서 다문화학생 취업연계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 현재 충남인터넷고에서 운영 중인 모델을 보완하여 육성
 - 현재 충남인터넷고에서는 아산지역 다문화 학생을 매년 20명씩 유치하고 있음
 - 한국어 기초, 심화 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취업역량 강화 교육
 - 기숙사 활동 및 지원
 - 협약업체 취업 알선
 - 참여기업 모집 및 기업 채용수요 (교육)분야 발굴



발전방안 5. 다문화,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모델학교 운영

- 국제협력을 경험한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도국 내 직업학교 교과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상호교류를 우선 시행하고 학생초청사업으로 발전
- 국내 고교 졸업생이 기술인력으로 취직·정주가 가능하도록 비자제도 개선 검토 필요
- 개도국 내 유사 분야 직업교육 기관(중등)과 직업계고 간의 업무협약체결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형성
- 상호교류: 국가 간 교류 약정 체결에 따라 학교 간 1:1 상호교류
- 컨설팅: 학기 중 온라인 컨설팅 실시 및 방학 중 대면 교류(국내 교원 협력 학교 방문)



- 외국인 유학생 선발국가: ASEN 국가(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 교육과정, 생활지도: 한국어 집중교육, 수업지원/생활전담인력 지원
- 국내 기업 위탁형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기술을 습득한 후 국내의 산업체에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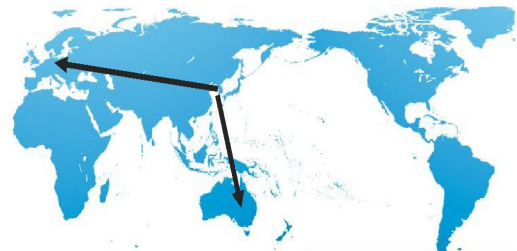
발전방안 6. 직업계고 해외현장학습 활성화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직업계고 해외현장학습 참가 직종/ 파견국가 확대

- 신산업 분야의 해외취업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호주, 독일 이외의 국가로 파견국가 확대
- 충남교육청 국제교육원과 연계한 외국어 교육 내실화
- 학교의 특색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사업단 운영
- 해외취업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해외 우수기업과의 MOU확대
- 현지취업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 현지 취업학생에 대한 추수지도 및 이력관리 강화



- 2023년 해외현장학습 참가학생
 - 호주 50명, 독일 10명
 - 국외에서 3개월 교육 (어학연수, 직무연수, 현장실습) 후 현지취업



발전방안 7. 직업교육 인식 개선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공포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3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501 호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전방안 7. 직업교육 인식 개선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공포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 지원
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
9.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11.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발전방안 7. 직업교육 인식 개선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충남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 운영(2025년 9월 개소예정)

- 미래 산업구조 변화와 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
- 직업계고 신산업분야 기술교육 및 초·중학교 직업교육을 통한 미래기술 전문인력 양성

구분	내용
사업명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기간	2023 ~ 2025 / 2025. 9월 개소 예정
사업위치	천안시 서북구 공대길 37(부대초 옆) 예정
총사업비	약 268.3억 원 * 사전 기획 용역 5천만 원 제외
건축규모	연면적 약 4,800㎡(4층)
공간구성	실습실 6실, 사무실 등 지원시설 7실, 홍보관, 지하주차장
운영프로그램	신산업분야 기술교육 실습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직업계고 홍보 프로그램(홍보관 운영) 직업계고 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직업선택 프로그램(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



발전방안 7. 직업교육 인식 개선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충남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2025년 9월 개소예정)

활용방안

구분	내용
신산업 분야 기술교육	미래자동차, 이차전지, 인공지능(AI), 협동로봇, 스마트제어, 반도체 분야 등 신산업분야 기술교육으로 미래 기술인재 양성
교원역량강화	한기대, 공주대 등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신산업분야 전문교과 교원 양성 연수 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직업계고 홍보	중학생 대상 직업계고 홍보 실시, 직업계고 홍보 부스 운영, 직업교육혁신지구센터 운영
초·중 직업교육	신산업분야 직업교육, 신산업분야 기초 기술교육 직업계고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직업계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발전방안 7. 직업교육 인식 개선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초·중 교원대상 직업교육 이해연수 강화

- 신규교사 연수, 1정 연수에 직업교육 이해 과목 필수 편성
- 중학교 담임교사 대상 직업교육 연수과정 확대
- 중등 진로전담교사, 관리자 대상 직업교육 설명회
-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과정에 직업교육 관련 연수강좌 필수 편성
- 초·중학교의 진로 직업교육 강화



● 중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직업교육 홍보

- 중학교로 찾아가는 직업계고 설명회 확대
- 직업계고 홍보와 인식개선 프로그램 확대
- 중학생 대상 직업계고 학과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운영 확대
- 선취업 후학습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발전방안 8. 전문교과 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직업계고 교원 역량강화 지원

- 산업체 현장 직무연수 확대
-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한 부전공 자격연수 과정 운영
- 경력별 맞춤형 현장연수 지원
- 학과개편교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확대
- 신산업 분야 혁신리더 교원 국외연수 추진



●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 인사정책 개선

-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가산점 부여 협의
-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 동일교 근속 상한 기간 확대 협의
- 교육부에 전문교과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편 요청(전공에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과정 운영)

발전방안 9. 정부의 직업계고 지원정책 강화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2008)

- 우수한 전문계고 50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집중 육성
- 졸업생 병역 이행방법 개선 및 후진학 성장경로 확립
- 교육과정 전면 자율화 등 마이스터고 규제개혁
- 학비 면제 및 장학금 지원, 기숙사 등 국가적 육성



●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

- 전문계고를 400개 정에 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
- 산업계·정부부처 공동으로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
- 마이스터고 확대와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확대
- 직업기초능력평가 도입 및 재직자 특별전형확대 등



발전방안 9. 정부의 직업계고 지원정책 강화



충남 특성화고 발전방안

● 고졸취업 활성화방안(2014)

-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 확대 및 명장 학교교육 참여
- 중소기업 홍보 강화 및 근로환경 복지제도 개선



● 고졸취업 활성화방안(2019)

- 직업계고 고교 학점제 우선 도입 및 학습 중심 현장실습
- 중앙취업지원센터 도입 및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2023.8.24.)

-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 육성(협약형고 35, 마이스터고 65)
- 디지털인재로 자라날 학생 기초역량 제고 등 총 8대 과제 제시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취업전략과 특성화고등학교의 활로 모색

취업전략과 특성화고등학교의 활로 모색

한국K-POP고등학교

교장 박 병 규

1. 들어가며

얼마전 공주에 있는 모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할 일이 있었다. 강연 시작전 교장실에서 차를 한잔 하며 나누는 대화속에 공주시에서 2022년도 출생한 출생아 수가 240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래도 공주는 행정구역이 시고 또 교육도시고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명 밖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 저 출생의 여파가 여실히 느껴졌다. 하긴 우리 학교가 있는 광천읍도 작년 출생아 수가 13명이고 사망자 수는 160여명이라는 말을 들었다. 공주시에 고등학교가 10개교이니 정확히 16년 뒤에는 한 개 고등학교당 24명의 학생이 입학한다고 보면 앞으로 닥칠 고등학교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의 위기는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활로 모색 방안으로 양질의 취업을 통한 인식제고와 국내,외 산업계에 우수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공급처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2.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의 필요성

충남 직업계고 재구조화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공경로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하여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도 1차 년 도로 학과 개편, 학생 취업 · 창업 역량 강화, 학생실습 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직업계고 지역인재 육성 지원체제 마련, 직업계고 바로알기를 통한 인식개선 등 5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3년간 344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세부 사업별로 교원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N=731)

사업명	빈도분석					기술통계
	매우필요 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필요 하다	
학과 개편 지원	12 (1.6%)	21 (2.87%)	172 (23.53%)	272 (37.21%)	254 (34.75)	4.0
수업혁신연수 중요도	10 (1.37%)	16 (2.19%)	173 (23.67%)	295 (40.36%)	237 (32.42%)	4.0
해외현장학습	14 (1.92%)	29 (3.97%)	198 (27.09%)	284 (38.85%)	206 (28.18%)	3.8
학점제운영	39 (5.34%)	58 (7.93%)	231 (33.65%)	246 (33.65%)	157 (21.48%)	3.5
창업교실	38 (5.20%)	69 (9.44%)	323 (44.19%)	199 (27.22)	102 (13.95%)	3.3
안전망구축	6 (0.82)	31 (4.24%)	163 (22.30%)	286 (39.12%)	245 (33.52%)	4.0
행복공간	7 (0.96%)	32 (4.51%)	170 (23.26%)	302 (41.31%)	220 (30.10%)	3.9
지역인재정학	9 (1.23%)	33 (4.51%)	183 (25.03%)	272 (37.21%)	234 (32.01%)	3.9
심화자격	30 (4.10%)	49 (6.70%)	250 (34.20%)	251 (21.61%)	158 (21.61%)	3.8
꿈그린캠프	28 (3.83%)	43 (5.88%)	251 (34.20%)	251 (21.61%)	158 (21.61%)	3.8
수업사례 공유	10 (1.6%)	28 (2.87%)	216 (23.53%)	302 (37.21%)	175 (34.75%)	3.8

3. 충남 직업계고 재학생 취업 선호도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자료출처 :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1.12)

| 제1절 | 진로 및 취업 성향 관련

- 충남 소재 직업계고 재학생 중 59.7%가 현재 취업목표¹⁾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업계열에 재학중인 재학생에게서 취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 취업목표 :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희망한 미래의 일자리 또는 직업, 단순히 희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한 정보탐색 이상의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경우가 포함됨

- 취업목표를 설정한 재학생들의 취업목표 설정 시기를 보면, 36.6%를 고등학교 이전에 설정하였고, 나머지 63.4%는 고등학교 때 취업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직업계고 재학생 중 58.4%가 향후 목표로 하는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목표로 하는 직종으로,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이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2] 향후 목표로 하는 직종(TOP5)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예술·디자인· 방송· 스포츠직	미용·여행· 숙박·음식· 경비·청소직	교육·법률· 사회·복지· 경찰·소방직 및 군인	경영·사무· 금융·보험직	설비·경비· 생산직
전 체		1,796	18.0	17.7	14.7	12.9	11.0
계 열	공업계	498	14.5	4.6	15.5	4.4	33.1
	상업계	775	20.4	17.9	16.6	23.9	2.5
	농수산계	333	15.9	23.1	13.5	6.3	3.9
	가사계	190	21.1	41.6	6.8	1.6	0.0

- 충남지역 직업계고 재학생들이 취업하길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국내 대기업이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내 중소기업,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 시 선호하는 지역으로, 1순위 및 1+2순위 모두 충남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지역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천안시가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2절 | 충남소개 중소기업 관련 인식

- 직업계고 재학생 중 충남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6% (매우 잘 알고 있음 1.5% + 알고 있는 편 19.1%) 수준임
- 충남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알고 있는 재학생들은 충남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준에 대해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3.45점(5점 만점 기준)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직무 적합성, 조직문화(기업 내 분위기) 등의 순으로 평가함
 - 한편, 연봉수준과 주거 및 육아 보육 등에 대한 평가는 각 3.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한편 졸업 후 충남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 의향이 있는 재학생은 64.6%로 나타났으며, 충남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을 고려하는 이유로, 실 거주지와 지리상 가까워서가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없는 재학생이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마음에 드는 기업이 없어서가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는 이유 : 실 거주지와 지리상 가까워서 (59.7%) >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어서(11.7%) > 학교 및 학교 선생님의 소개, 지역 거주자 우선선발 등 취업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11.1%) 등의 순
 -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 마음에 드는 기업이 없어서(23.9%) > 대학진학(20.4%) > 임금수준 및 복리후생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서(12.4%)

| 제3절 | 직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경험

- 학교에서 받는 정기 수업 외에 직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재학생은 49.3%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가사계 재학생에서 직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은 경험이 타 계열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분야로, 식품 분야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컴퓨터, 경영·사무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재학생의 72.1%가 직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취업준비교육(자소서, 면접 등), NCS 직무능력 기초 평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직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중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 1순위, 1+2순위 모두 자격증 취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직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재학생은 전체의 71.2%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가사계에서 향후 직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타 계열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 분야로, 컴퓨터분야가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분야, 식품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재학생들은 향후 직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주된 목적으로, 취업을 위해가 41.1%로 가장 높에 나타났고, 다음으로 업무에 필요할 것 같아서, 대학 진학을 위해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충남 직업계고 재학생 취업 선호도 조사 내용

- 자료출처 :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1.12)

| 제1절 | 진로 및 취업 성향

가. 고교 졸업 후 계획

- 충남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은 고교 졸업 후 계획에 대해 취업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년제 대학 진학 21.2%, 취업과 진학의 병행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고교 졸업 후 계획

(base : 3,093명,단위 : %)

- 재학생 중 공업계 계열 및 남자 재학생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고교 졸업 후 4년제 대학 진학을 하겠다는 응답은 가사계 재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7] 고교 졸업 후 계획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취업	4년제 대학 진학	취업과 진학의 병행	전문대 진학	유학	기타
전 체		3,093	45.4	21.2	14.7	9.7	0.7	8.2
성별	남 자	1,751	51.1	16.3	13.0	9.0	0.6	10.1
	여 자	1,342	38.0	27.6	17.1	10.7	0.9	5.8
계열	공 업 계	917	54.7	12.1	16.7	6.3	0.5	9.6
	상 업 계	1,326	40.3	24.9	15.8	10.6	0.8	7.3
	농수산계	593	46.0	22.3	10.1	13.5	0.8	7.3
	가 사 계	257	36.6	31.9	13.2	8.2	1.2	8.9

- 재학생들이 계획을 선택한 이유로, 기타를 제외하고 대졸과의 임금격차가 2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력 차별, 낮아진 대학 진입장벽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0] 계획 선택 이유

(base : 1,690명, 단위 : %)

- 상업계, 여자 재학생에서 계획 선택 이유로 기타를 제외하고 대졸과의 임금 격차라는 응답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8] 계획 선택 이유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대졸과의 임금격차	학력 차별	낮아진 대학 진입장벽	현장실습 제재	기업 고용 감소	기타
전 체		1,690	23.8	19.5	11.1	10.3	7.5	27.8
성별	남 자	858	20.9	16.0	13.6	8.6	8.5	32.4
	여 자	832	26.8	23.1	8.5	12.0	6.5	23.1
계열	공 업 계	416	25.5	15.4	12.7	6.5	9.9	30.0
	상 업 계	791	25.8	20.2	10.7	11.6	7.1	24.5
	농수산계	320	17.2	20.3	11.9	10.9	6.9	32.8
	가 사 계	163	22.7	24.5	7.4	12.3	4.9	28.2

5. 나가며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달리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산업 사회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비를 서둘러 해야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학생들의 수요 요구에 맞춰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특성화 고등학교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2023 충청남도 의정토론회
충청남도 특성화고 발전 방안

2023 충청남도 의정토론회

충청남도 특성화고 발전 방안

- ❖ 일 시 : 2023.11.23.(목) 14:00
-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303호 회의실
- ❖ 발제자 :
 - 소 속 : 홍성공업고등학교
 - 직 위 : 교 장
 - 성 명 : 김 종 오

[차 례]

I. 직업계고 현황

- 1. 정의 41
- 2. 일반현황 41
- 3. 직업계고의 역할 42

II. 과거 성과와 한계

- 1. 성과 44
- 2. 한계 44

III. 고졸 취업 현황 및 문제점

- 1. (취업 전) 학교에서의 중등직업교육 단계 .. 47
- 2. (취업 시) 고졸 취업 단계 49
- 3. (취업 후) 사회적 자립 단계 50

IV. 발전 방안

- 1. 취업 전 52
- 2. 취업 시 58
- 3. 취업 후 61
- 4.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63

I. 직업계고 현황

1. 정의

가. 마이스터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 일반고 중 특성화계열 학과를 동시에 운영하는 고등학교(구 종합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일반현황

가. 학교 현황

구 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계
	농업	농공	농공상	수산 해양	공업	상업 정보	가사 실업	문화 예술		농업	농상	상업	
학교수	2	1	1	1	8	12	2	1	5	1	1	3	38
계	28								5	5			

나. 학생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합 계	183	3,887	188	3,545	193	3,663	564	10,843

다. 계열별 현황

구분	농·해양	공업	상업정보		가사실업/문화예술	계
특성화고	천안제일고 공주생명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주산산업고(농공) 금산산업고(농공상)	부여전자고 장항공업고 논산공업고 천안공업고 홍성공업고 금산하이텍고 예산전자공업고 서산공업고	공립	사립	병천고 성환고 한국K-POP고	28
			당진정보고 강경상업고 대천여자상업고 충남인터넷고 부여정보고 충남드론항공고	천안여자상고 천안상업고 논산여자상업고 서천여자정보고 공주정보고 예산예화여고		
마이스터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	함덕제철고 공주마이스터고 연무마이스터고 아산스마트팩토리고				5
종합고	서산중앙고(농)		청 양 고(농상)	온양한울고(상) 태안여자고(상) 삼교고(상)		5
계	7	12	16		3	38

3. 직업계고의 역할

직업계고는 아이들의 다양한 꿈 실현
경쟁 중심 교육의 완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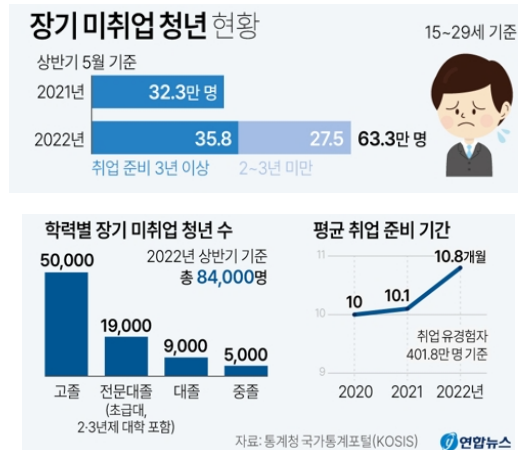
가. (교육) 기술전문가로 성공하고자 하는 학생의 꿈을 실현

대입 중심, 지식 위주 교육, 현실에서 고졸 취업을 희망하고 기술 소질을 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새로운 성장 경로의 마련이 필요하다.

- ※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79.5점으로 OECD 국가 22개국 중 최하위('21, 통계개발원)
- ※ 청소년 실업률은 7.7%로 OECD 국가 평균 5.5% 보다 높으며 26개국 중 22위('21, 통계개발원)
- ※ 핵심노동인구(25~54세) 고용률은 75.2%로 OECD 국가 36개국 중 29위('21, OECD)
- ※ 핵심노동인구(25~54세) 비중은 OECD국가 38개국 중 2위('20, OECD)
- ※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21, OECD)

나. (사회) 입시 과열과 과잉학력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

- 1) “대학진학=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과잉 경력 등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다.
 - ※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이 한국 69.6%, OECD 평균 47.2%, 1위('22, OECD)
 - ※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비율이 18%로 OECD 평균 42%의 절반 수준('22, OECD)
 - ※ 과잉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진출 지연 기회비용은 연간 최대 19조원, 입시 사교육비까지 고려 시 기회비용은 39.1조원, 문제 해결 시 GDP 성장률 1% 증가 ('12, 삼성경제연구소)
- 2) 입직연령 상승과 청년의 사회적 자립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 ※ 입직연령(통계청, 세) : ('04) 22.5 → ('10) 23.3 → ('16) 23.6(OECD 평균보다 3.5세 높음)
 - ※ 입직 소요기간 : 대졸자 11개월, 고졸자 35개월
 - ※ 청소년 실업률 : 2021년 OECD 26개 국가 중 21위



	2019	2020	2021	2022
평균연령	42.6	42.9	43.4	43.8
평균근속년수	6.7	6.8	7.0	7.2
	고졸	100.0	100.0	100.0
	초대졸	111.7	113.0	114.4
	대졸이상	152.8	156.4	155.4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용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부분)」

다. (경제) 청년 일자리 구조적 불균형 해소

- 고졸취업 활성화는 청년노동시장 고학력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과 대졸 이상 실업률 상승이라는 일자리 구조적 불일치 해소의 열쇠
-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 공급 75만 명 / 고졸 인력 초과 수요 113만명 예상(『'17, 「'16-'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 우수 고졸 인재 육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분야 육성에 필수

“특성화고 중등 직업교육 강화 →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 자립 지원”을 통해 고졸 후 취업해도 사회적으로 자립·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및 사람 중심 포용 성장의 뒷받침이 될 것이다.

Ⅱ. 과거 성과와 한계

1. (성과) 중등직업교육 강화와 고졸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직업계고 취업률 비약적 상승('10, 19.2% → '17, 50.6%)

가. 직업교육의 선진화

마이스터고를 도입('08) 확대하여 직업계 롤모델로 육성, 도제학교를 통한 현장실습 기반 직업교육 정착

※ 마이스터고 현황 : ('08) 9개교 → ('11) 33개교 → ('14) 44개교 → ('18) 50개교 → ('27) 65개교(예정)

※ 도제학교/과정 수 : ('14) 9개교/9 과정 → ('16) 140개교/160과정 → ('18) 163개교/198과정

나. 일반고 직업교육 제공

일반고 학생 중 대학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고2(2학기) · 고3 학생을 위한 중등 직업교육 기회 확대

※ 고3 직업위탁과정 참여 학생 수 : ('13) 8,879명 → ('15) 12,533명 → ('18) 14,514명

다. 고졸 취업 확대

그간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범정부 차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직업계고 취업률 지속 확대

※ 취업률 ('10) 19.2% → ('13) 40.9% → ('15) 46.6% → ('17) 50.6% → ('22) 30%이하

2. (한계) 고졸-대졸 임금격차, 고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전, 소수 우수 직업계고 외 다수 직업계고 소외, 양질의 고졸 일자리 부족

가. 고졸 출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학 중심의 학력 중시 사회적 풍조로 인하여 직업교육과 고졸 취업에 대한 기피 현상 여전

※ 직업교육 받는 고등학생 비율 : 한국 18%, OECD 국가 평균 42%

※ 직업계고 미충원 학생 비율(%) : ('16) 2.8 → ('18) 11.6

※ 입학생 수(명) : ('12 111,000) → ('22, 59,000) 10년 동안 47% 감소

※ 순수고졸(20~24세) 고용률(%) : [남] ('03) 71.1 → ('14) 61.1 [여] ('03) 65.2 → ('14) 54.7

나. 다수 직업계고 소외

정부 지원이 소수 학교(계열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전체 중등 직업교육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

※ ('18년 기준) 중복지원(2개 사업 이상) 학교 185개교(31.3%)/ 미지원 학교 216개교(36.8%)

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기업은 학력·경력 중심으로 인력선발을 선호하고 고졸 취업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인식하는 등 고졸 일자리는 열악하다.

※ (정 규 직) 고졸 34.5% < 대졸 이상 58.3%
(비정규직) 고졸 44.1% > 대졸 이상 32.6%

Ⅲ. 고졸 취업 현황 및 문제점

- (학생) 고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열악한 일자리 및 낮은 임금, 경력단절(군 복무) 등으로 사회적 자립 곤란 ⇨ 고졸 취업 기피
- (기업) 중등직업교육 이수자의 직업역량에 대한 낮은 만족과 군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신산업분야 고졸인력 부족 ⇨ 고졸채용 비선호

<직업계고 학생의 현주소>

- ①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 일반고 대비 저소득층 비율 2배 이상

구 분	특성화고	일반고	비고
저소득층 비율(%)	28	13	2017년 자료

- ② (낮은 수준의 기초학력) 일반고 대비 기초학력 미달 비율 3~4배 이상

과목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 고
수학	15%	4%	201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	9%	2%	

- ③ (학교 적응에 어려움) 일반고 대비 학업중단 비율 2배 이상

학교구분	특성화고	일반고	전체	비고
학업 중단 비율(%)	2.6	1.2	1.4	2017년 자료

- ④ (졸업 후 취업 희망 높음) 과반의 가까운 수가 졸업 후 취업 희망

구 분	취업	진학	미결정	창업	기타	비고
졸업 후 희망 진로	45.7	31.1	15.8	2.2	5.2	2017 진로교육 현황조사

⇨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포용국가 구현의 첫걸음이다.

1. (취업 전) 학교에서의 중등직업교육 단계

- 소수의 우수직업계고와 그 외 특성화고 간 취업률, 교육역량시설 등에 있어 큰 격차
 - ※ 취업률('17) : 마이스터고 93%, 특성화고 50.8%, 일반고 직업반 22.4%
 - ※ 정원미달 직업계고 수(%) : ('16) 140개교(24.1) → ('17) 237개교(41.1) → ('18) 281개교(48.4)
- 전통 제조업 중심의 교육과정과 시설로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기술습득 중심의 교육 여전
 - ※ '16~'18년 미래 유망분야로 개편된 학과 수는 78개에 불과(직업계고 비중확대 사업 개편 대상 학과 381개의 20.5%, 전체 직업계고 2,163개 학과의 3.6%)
- 학생이 선호하는 직업교육은 부족하고,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 직업계고 탈락 학생수(명) : ('15) 16,154 → ('16) 19,513 → ('17) 16,789
 - ※ 일반고 직업위탁과정 참여학생 현황(명) : ('15) 12,533 → ('16) 12,797 → ('17) 13,119

가. 다수 일반 직업계고(특성화고) 소외 및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1) 정부 지원의 격차가 크다

집중·우선 투자 형태'로 소수 직업계고를 지원·육성 → 대다수의 직업계고 소외, 직업계고 간 격차 심화

※ 마이스터고 : 연 평균 10억원 + 정부부처 연계에 따른 추가지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 연 평균 약 4억원

일반 특성화고 : 일부 선별된 학교에 연 평균 2억원

2) 직업교육의 소외

직업교육은 대학 입시교육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여 행·재정적 지원 열악

※ 전체 고교 대비 직업계고 학생 비율(%) :

('90) 35.5 → ('00) 42.2 → ('10) 28.9 → ('17) 19.0

나. 중등 직업교육의 낮은 현장성, 산업변화 대응 부족

1) 학교 불일치

직업계고 교원, 교육과정의 경직성, 시설투자 부담 등으로 산업변화에 따른 학과 개편 어려움

2) 신산업분야 교원 부족

학과 개편에 필요한 신산업분야 교원 양성·채용 및 기존 교원의 재교육 기회 부족, 산업현장 인재를 교사로 채용하는 산학겸임교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직업계고에서 실제 활용은 미흡

※ '17년 산학겸임교사 수는 약 470명(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원 14,931명 중 3.1%)

3) 기술습득 편중 교육

교육과정이 기술습득에 편중되어 있어 직업윤리교육, 노동교육, 및 직업 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등 부족

※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ICT 능력, 기초소양 등

직업기초 역량이 매우 중요"('18, 4. 전문가 간담회)

-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은 일반고 학생 대비 기초학력 수준 미흡

※ 국가별 직업계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학> (OECD 직업계 평균) 17% (독일) 2% (일본) 4% (한국) 15% / (한국 일반고 4%)

<과학> (OECD 직업계 평균) 10% (독일) 2% (일본) 2% (한국) 9% / (한국 일반고 2%)

4)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됨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발굴에 애로 → 현장실습 위축 현장 직무능력 약화 및 취업률 감소 우려

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하는 현실

1) 특성화고 탈락자 등 일반고 재학생 중 직업교육 수요자 수 대비 양질의 직업교육 기회 제공 부족

※ 특성화고 탈락자('17, 16,789명), 일반고 졸업자 중 비진학자('17, 95,227명) 등

아울러 일반고 직업위탁교육은 학생 생활지도, 질 관리가 어려운 직업훈련시설 (민간학원 등) 중심으로 운영 → 교육 효과성 저하

2) 직업계고로의 전입학 시기가 제한되어 있어 고3 중심의 직업위탁교육으로 진로변경 시 희망자가 즉시 교육받기 어려운 현실

※ 현재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상 일반고 → 특성화고 전입학은 2학년 1학기까지만 가능

2. (취업 시)고졸 취업 단계

- 중소기업과 신산업분야 기업은 인력난과 조기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
 - ※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 (300명 미만) 12.6% (300명 이상) 4.6% ('17, 고용노동부)
- 학생은 양질의 취업처가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이중고
 - ※ (비정규직 비율) 대졸 21.4%, 고졸 38.6%
 - (임금) 대졸이 고졸의 155%
- 50% 수준에서 직업계고 취업률 정체
 - ※ 직업계고 취업률(%) : ('11) 25.9 → ('14) 44.2 → ('16) 47.2 → ('17) 50.6

가. 양질의 고졸 일자리 감소 및 민간의 고졸 채용 유인체계 부족

- 1) 양질의 고졸 일자리 감소
- 2) 고졸자가 선호하는 우량기업·공공부문 등 괜찮은 일자리(desent job)에서는 고졸 채용 감소세
 - ※ 공공기관 고졸 채용인원(명): ('13) 2,018(11.7%) → ('15) 1,784(9.2%) → ('17) 1,858(8.2%)
 - 대기업 고졸 채용인원(명): ('13) 10,772(23.3%) → ('15) 7,746(14.4%) → ('17) 5,399(9.9%)
 - ※ 2016년 대졸 취업율은 67.7%이나 직업계고 취업률 47.2%에 불과('17, 한국교육개발원)

나. 고졸 일자리 창출 유인 부족

공공분야 고졸채용 목표제, 할당제 등이 부족하고 고졸 채용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다. 지역연계 고졸취업 정책 미흡

지역 전통산업 발전을 위해 고졸 인력을 활용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지역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고졸 취업 정책 등이 부족

- ※ 지역발전지수 : (서울) 6.74(1위), (울산) 6.41(2위) (전남) 5.19(16위) ('16, 산업연구원)

라. 직업계고·교육청 등의 일자리 매칭·연계 기능 미흡

- 1) 컨트롤타워 부재

중앙-시·도교육청을 잇는 취업지원 인프라가 부족, 전국 단위 일자리 매칭, 고졸 취업자 통계관리 등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 부재

2) 취업 전담 인력 부족

관찰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 및 취업 알선 지원 전담인력 등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고 선택하는 데 애로

※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여도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취업 결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18. 3. 고졸 재직자 간 간담회)

3. (취업 후) 사회적 자립 단계

- 중소기업 취업 후 낮은 임금, 높은 생활비 등으로 자산형성 등 자립에 어려움
- 취업 후 승진, 인사관리 등에서 불이익, 조직 내에서 성장하기 위한 경로 부족
 - ※ "저는 보험연수원이나 보험개발원이 주최하는 교육대상자에 해당이 안 돼요. 대졸 신입사원들은 연수원에서 관련 교육을 받는데, 저희는 그냥 항상 제외되어 있어요." ('16, 「고졸 청년 취업자의 일, 학습, 삶에 대한 종단적 네거티브 탐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취업 후 재직과 병행한 능력개발이 어려운 현실
 - ※ [사례]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려는 근로자에게, 기업에서는 야근을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

가. 저임금 등 사회진입 초기 단계 자립 곤란

1) 대 ·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다

고졸자는 중소기업에 주로 취업하나, 임금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음
- 특히 고졸자가 학력 외에는 숙련도를 증명하기 쉽지 않아 재직 기간이 증가할수록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심화하는 경향

<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

(단위 : %)

기준연도	구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석박사)
2020년	한국	110.2	138.3	182.3
	OECD 평균	120.3	143.8	187.6

※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100 기준

나. 군 복무 등 경력단절 요인 및 능력개발 · 성장경로 미흡

1)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고졸 취업자는 취업 후 2~3년 후 입대하게 되어, 사실상 퇴직이나 불가피한 경력단절(숙련도 저하) 경험

※ 군 경험이 직업 전공과 관련성이 높을수록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2014, 직능원)

- 기업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고졸 채용을 기피하고 군 미필 고졸 재직자에 대한 역량개발 투자도 소홀

2)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 부족

고졸자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에 인색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훈련 등 투자 여력 부족

※ 기업별 교육훈련 제공 여부 : (300인 미만) 26%, (300인 이상) 67%('17 서울대 국평원)

특히 고졸 취업자가 후학습 등을 통한 자기 계발로 학위를 취득해도, 기업은 이들에 대한 임금·인사 등 처우개선에는 소극적이다.

[현장의 목소리] 서울대-국가평생교육진흥원, 후학습 관련 설문조사 중('17)

- ▶ ... 직원 한 명 빠지면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일 잘하는 친구에게 보상의 측면이라 해도 혹시 그 친구가 대학에서 다른 정보를 듣고 이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체 관계자)
- ▶ ... 졸업 후에 임금 상승이나 처우 향상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학위를 받았다는 건 개인적인 능력 향상이나 배움의 갈증 해소인 것 같습니다 ...
(D대학교 000 졸업생)

3) 고졸자 능력개발 경로 미흡

고졸 재직자들의 대표적인 진학 경로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이 수도권에 편중

※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현황 : ('18, 92개교) : (수도권) 44개교(48%), (대전 · 충청권) 14개교(15%), (대구 · 경북 · 강원권) 11개교(12%), (부산 · 울산 · 경남권) 11개교(12%), (호남 · 제주권) 12개교(13%)

- 또한 고졸 재직자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대학에 부족함을 호소(32.2%)

※ 가장 필요한 국가 지원은 등록금 지원(51.2%)으로 응답 ('17, 서울대 · 국평원)

IV. 발전 방안

1. (취업 전) 중등 직업교육 강화

가. 직업계고 체질 개선 추진

1) 산업 맞춤 학과 개편 추진

미래 신산업 및 지역 전략 산업 등과 연계한 학과 개편 추진

※ (유망 신산업) 미래형자동차, 드론항공, AAR(융합 신산업) 핀테크, U-Health 등

- 직업계고 학과개편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개선 관련 컨설팅실시

< 학과개편 추진방향(안) >

□ 혁명 분야나 신산업 분야로 학과개편 지원 및 유도

※ 예시) 농업 관련 학과 → 바이오 관련 학과 / SW학과 → 빅데이터학과

□ 경쟁력이 부족한 직업계고(사양산업 분야 등)의 경우, 유망산업, 서비스산업, 지역특화산업분야로 계열·학과개편 유도

2) 다문화·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가) 도내 다문화 학생 수는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

- 현재 충남인터넷고에서 아산지역 다문화 학생을 매년 20명씩 유치하고 있음
- 한국어 기초, 심화 교육, 한국문화 이해 교육, 취업역량 강화 교육
- 기숙사 활동 및 지원, 협약업체 취업 알선

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모델학교 운영

- 유학생 선발국가: ASEN 국가(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 교육과정, 생활지도 : 외국어 집중교육, 수업지원/생활전담인력 지원
- 국내 기업 위탁형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기술을 습득한 후 국내의 산업체에 취업
- 학교간 상호 교류 및 컨설팅

3) 지역기반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하지만 특수(희소)한 산업분야 혹은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위한 소수 정예 학교 도입

- ※ 전국 35개교 육성 예정(교육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2023.8.24.)
- ※ 지자체 · 교육청 · 지역(산업)SC · 특성화고 등이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MOU) 체결
- ※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과정 운영 및 인재육성을 위한 자율권을 갖고,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우선 지원

4) 직업교육 현장성 제고

- 직업계고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 산업계((산업체 현장전문가 등) 1/5 이상 참여 유도
- ※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직업계고 교육과정 편성 시 직접 참여 확대
- (규제 완화) 희망하는 직업계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교원 등 관련 규제 완화 지원
- (교원연수 강화) 중 · 장기 산업현장 직무연수 및 대학원 특별연수를 확대하고 신산업 · 유망분야에 대한 부전공 연수 활성화
- (교원 인사정책 개선) 가산점 부여, 동일교 근속기간 확대

5) (학생·학부모 직업교육 인식 강화)

찾아가는 직업계고 설명회, 학과체험, 취업박람회 확대, 학부모 평생 교육 실시 및 홍보 강화, 도제학교 운영, 선취업 후학습 정책 안내 등

6) 자발적 혁신 지원

직업계고가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요청 시 심사를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

- ※ 기초학습 부진비율 축소, 학생취업률 제고 등을 성과계약으로 체결
 -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매직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매년 지원 대상 학교를 증대한다.
 - 특히 학생들의 학습 의지가 낮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직업계고(교육청 추천)학교에 매직사업 내 별도 지원
- ※ 교장공모제 적용, 자율학교 지정, 교원 재배치 · 증원, 기숙사 설립 지원 (교육부) 교육부 지원 사업(비중 확대, 매력있는 직업계고 육성 등) 우선 선정 등

나. 학생 중심의 중등직업교육체제 구축

- 1) 직업계고에 학점제 시행 : 2025년부터 전체 학교 1학년 적용
 - 자율학교 지정, 교육과정 이수단위 조정
 - 학교 밖 교육훈련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지역사회, 산업체, 전문기관 등 외부자원(인 · 물적)을 활용한 위탁교육 및 연계 교육 활성화

2) 해외현장체험학습 확대 추진(참가 직종, 대상국 확대)

- 현재 : 2023년 해외현장학습 참가학생 호주 50명, 독일 10명
- 국외에서 3개월 교육, 해외 우수기업과의 MOU확대
- 충남교육청 국제교육원과 연계한 외국어 교육 내실화

3) 현장실습 개선

현장실습 참여기업 기준 절차를 합리화하고 학교 교육과정(현장실습)과 취업과의 연계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활성화 추진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실습 개선 방안 마련

4) 미래핵심역량 제고

SW과목 이수·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보통교과를 직업기초능력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직업기초능력과 연계한 보통교과 지도서 및 안내서 보급, 직업계고 보통교과 교원대상 직무연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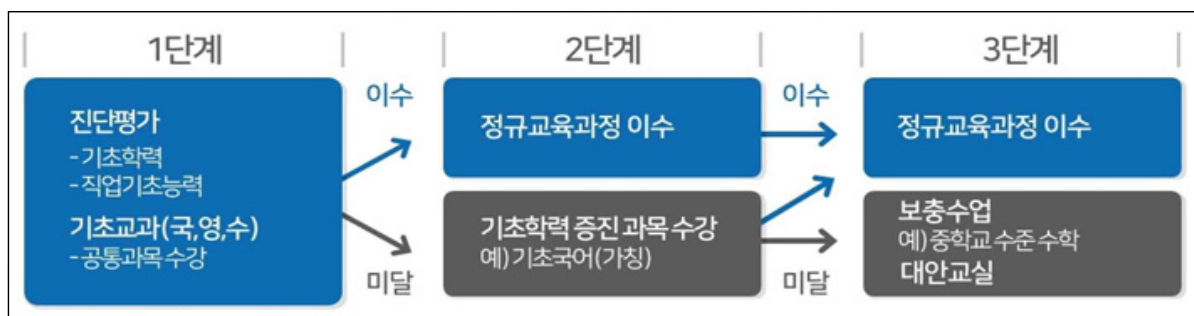
- 직업기초능력평가 영역을 미래사회 요구에 맞게 개선하고, 1학년 학생 대상으로도 확대 실시하여 역량 수준 진단을 강화한다.

5) 기초학력 보장 강화

학점제를 기반으로 진단평가→기초교육→보충지도로 이어지는 맞춤형 학습부진 지원체계 구축 추진

입학생 대상으로 기초학력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기초학력 증진 과목 및 보충수업 등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직업계고 기초학력증진 프로세스>



5) 교육복지 기능 강화

학교 부적응 등 취약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직업계고에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 우선 배치한다.

※ 저소득층 비율, 학업중단 학생 비율 등에서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진로전담교사의 경우 직업계고 근무경력이 있는 교사를 우선 배치한다.

다. 중등직업교육 기회 실질적 보장

1) 특성화고 기숙사 설치

지역 거리에 관계없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어촌 및 도농복합도시 특성화에 기숙사를 설치 운영한다.

※ 농산어촌 및 도농복합도시 소재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기숙사 신청 때 우선 선정·지원

2) 진로·진학상담 강화

초·중학생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직업계고 진학 희망자에 대한 중3 담임교사의 진학지도 강화

- 직업계고 학생 등 진로상담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진로교육 콘텐츠 등 개발 지원 강화

3) 특성화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신설

학생 보호 강화 및 체계적인 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특성화고 내 일반고 학생 대상 위탁과정 신설

- 6개월, 1년, 1년 6개월 과정 등 진로 변경 시기별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한다.

- 2학년 2학기 위탁과정 수료자에게 일반고 → 특성화고 전·입학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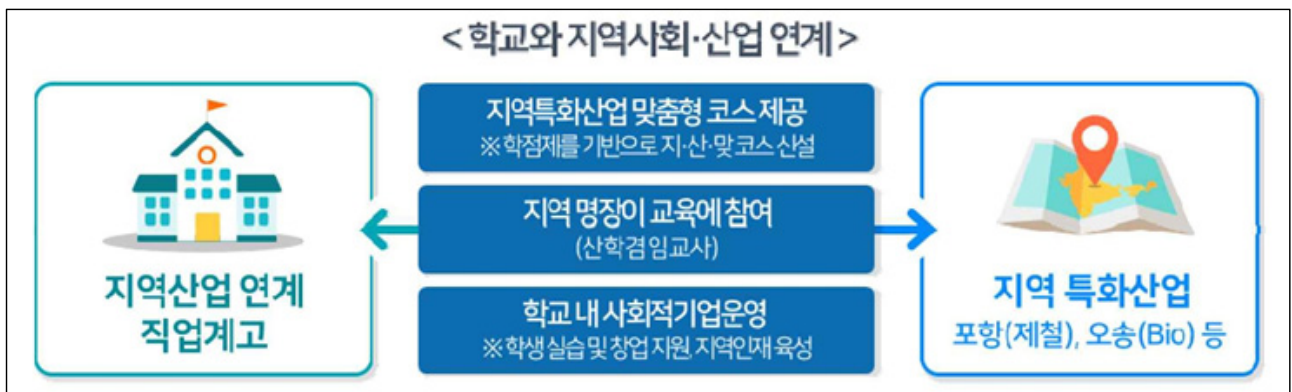
※ 현재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상 일반고→특성화고 전·입학은 2학년 1학기까지만 가능하다.

라. 상생 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 구축

1) 지역 상생 모델 도입

지역사회 및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 운영한다.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으로의 취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지역 명장을 교수 인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술 전수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교내 명장공방을 적극 확대한다.
- ※ 명장의 작업장, 작품전시장, 학생을 위한 교육실습장 및 사업장 등으로 활용
- 지역기업 연계 생활밀착형 협동조합(학교기업)을 학교 내 설치 운영하여 현장 실무교육 및 지역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지원

[예시] 생활밀착형 협동조합 설치·운영 >

- ▶ (운영내용) 직업계고 유아·보육과와 연계하여 학교 내 유희공간에 보육 및 육아 시설(학교기업 유형)을 설치하고, 신중년 및 경력단절 여성, 직업계고 학생 등 채용
- ※ 보육/유아교육과 개설 특성화고(개교, 입학정원) ('18) 4개교, 200명

- 지역사회 기여 :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직업교육센터로 활용
- ※ 지역 내 산업정보학교, 공동실습소를 우선 활용하고, 창업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도 설치
- ※ 주민의 직무능력 향상, 전직, 재취업, 창업 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자격과정 등 운영

[참고] 지역공동체 참여모델(여주자영농고)

- ▶ (귀농귀촌대학)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 희망자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작물재배, 농기계 중장비 운전교육 등 성공적인 조기 농촌 정착지원(경기농식품진흥원 협업)
- ▶ (장롱 팝쉐어) 지역의 창업농 후계자(50세 이상)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창업설계 및 경영 컨설팅(경기도청 협업)
- ▶ (여농 에듀팍 학교기업) 학교 교직원-학생-지역주민(도매)이 참여하여 육류가공 및 낙농제품 제조, 육류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2)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 확대

각 정부부처 소관 분야별 핵심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 특히 부처가 학교경영(공모교장 추천)에 참여하고 학교운영비·취업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하는 부처 협약형 직업계고를 시험 운영한다.
- ※ 스마트공장 관련 맞춤교육 및 체험과정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거점 직업계고를 지정 운영한다.

3) 도제학교 내실화

교육부 노동부 협업을 통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재선정 시 우수학교 및 제4차 산업 유망 분야 관련 학과 우선 선정

※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기간에 대한 탄력적 운영(2년 →1~1.5년)

검토 및 기업 발굴 체계적 지원

마. 중등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거버넌스 강화

교육부 및 교육청에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 사업을 논의 해결하는 가칭 중등직업위원회 설치 운영

※ (구성) 교육부 장관(위원장) 시 도교육청 교육감 (당연직위원)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 교수 및 직업계고 교장, 학부모 등

2) 충남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 운영(천안시, 2025년 9월 개소 예정)

미래 산업구조 변화와 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

- 직업계고 신산업분야 기술교육 및 초·중학교 직업교육을 통한 미래기술 전문인력 양성

3) 한국형 마이스터고 확대 운영

우수한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교로 선정하여 집중 운영

- 병역 이행 방법 개선, 각종 경제적 지원

4) 교원 양성 과정 개방화

신산업 분야 현장전문가 대상 교원 자격증 취득 과정 확대 및 임기제 채용 법률 근거 마련

- 사범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개설, 산학 겸임교사가 교직 과목(전공 제외)를 이수하여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교사양성특별 과정 활성화 등
- 신산업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5~10년)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 추진

5) 교수 인력 확보

학과 개편, 실무중심 교육, 고교학점제 시행 등을 고려 직업계고 교수인력 확보

- 현장실무 중심 실습지도, 학습 상담·설계,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교수 인력 교당 3명~5명 배치

※ 산학 겸임교사, 강사 등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추진

6) 재정투자 확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및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 확대

- ※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실무중심 교육, 신산업으로의 학과 개편 등을 감안한 직업계고 표준 교육비(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재산정
- 투자 실효성 제고 : 중등직업교육 예산이 학교 현장에 충분하게 투자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부금 정산 개념 도입
- ※ 중등직업교육 관련 보통 교부금은 기존 제정 수요액 산정 시,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제정교부금법 시행규칙」개정

2. (취업 시) 양질의 보조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가. 공공부문 고졸 채용 확대

1)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지역 인재 9급 고졸 채용인원 단기적 확대(국가직 : '23년 20%이상)

※ 단 장애인·저소득 등 구분 모집 인원 제외, 지역 인재 9급 임용 가능, 직렬에 한함

- 지역 인재 9급 기술직군 합격자 대상 전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2)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 경쟁임용 인원 단계적 확대('22년 30% 이상)

3) 공공기관

생명·안전, 현장·기술 분야 등 중심으로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추진 및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 도입 (블라인드 채용 이전 수준, 학교장 추천제 등)

- 기관별 적합 업무 발굴 및 채용 계획 마련·점검, 경영 평가 지표에 이행 실적 반영

나. 기업의 고졸 채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1) 인증제 도입 능력 중심 고졸채용,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에 대한 기업에 투자 등을 고려, '선취업 →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신설

※ 현행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Best-HRD) 분야를 대기업, 중소기업 2개 분야에서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을 추가한 3개 분야로 개편

-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우대

청년친화 강소기업(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가점) 선정 시 인증기업에 가점 5점 부여

- 정책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지원 대상에 인증기업 포함
- ※ 정책 지원이 필요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공급하는 자금
- 공공 입찰 가점 인증기업이 공공입찰 시 신인도 가점 부여
- ※ 적격 심사 시 계약 이행 능력(납품 실적, 기술 등급, 경영 상태) 취득 점수와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
- 중소기업 지원 사업 우대 인증기업에 중소기업 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평가 시 우대
- ※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하는 일자리 평가에 +5점 부여

다. 지역 일자리 및 해외 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

1) 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지자체 - 교육청 간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 →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산학협력 맞춤 일자리 등 지원

- ※ 학교는 기업 맞춤교육 실시, 산업체는 참여 학생 졸업 후 일정 기간 취업 보장

2) 지자체 정책 유도

지자체-교육청 취업 연계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고졸 취업 등 일자리 관련 지자체 평가 지표 개선 검토

3) 해외 취업 지원

직업계고에 국제통용 자격 취득 등 해외 현지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22년 200명 이상)

- ※ 국제통용 자격(IT, 용접, 해기사 등), 신산업환경(4차 산업혁명, ICT 등) 한류(뷰티, 조리 등) 등

- 글로벌 현장학습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참여 인원 대폭 확대('17년 408명 '22년 1,000명 이상)

- ※ 2017년 13개국, 408명 파견자 중 394명 취업, 86.8% 해외취업자 204명

라. 고졸 취업 지원체계 강화

- 1)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도 취업지원센터)간 협력체제 구축 및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중앙 취업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 전국 단위 일자리 매칭, 우량기업 정보제공, 취업지원 사업 발굴 운영

-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구직 구인 플랫폼 구축 등 지원
- 2) 시·도 취업지원센터 기능 강화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내
실화를 통한 고졸 취업 지원 체제 구축 확립
-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표준 운영 모델 개발
보급
- 지자체, 경제단체, 고용센터 등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취업 컨
설팅, 취업처 발굴, 연계, 현장실습 통계 관리(공공 DB 연계) 등 지원
- 3) 취업지원관 채용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 교당 1인 배치(2019년 400명 2022년 1,000명)
- ※ 산업체 재직 경험이 있는 신중년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
하여 전국 단위 및 기업 단위 우수 취업처 발굴, 학생 취업·상담 일
자리 매칭 등 업무 수행
-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취업지원관 관련 내용 신설
- 4) 일자리 정보제공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 정보 통합 제공 및 기업인력
애로센터, 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통해 현장실습 가능
기업 및 구인 정보 등 제공
- 일자리 매칭 관련 기관의 평가 지표에 고졸 일자리 매칭 실적을 포함
- 5) 고졸 취업 규제혁신 고졸 취업에 장벽 요인이 되는 자격, 연령, 학력
등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
- ※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고졸 취업 규제 요인 발굴 관리, 규제
개혁 신문고 등을 활용하여 현장 의견 적극 수렴

마. 중소기업 근무 여건 및 대국민 인식개선

- 1) 근로 요건 개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 중심에 근로 감독 실시
-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사업 및 일터 혁신 컨설팅(장시간 노동 개선,
작업 조직 환경개선, 임금 평가 체제 개선 등) 적극적으로 추진
- 2) 중소기업 인식개선
- 중소기업 탐방단(학생, 학부모, 교원) 운영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발굴
→ 홍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 ※ 유망 중소기업(월드클래스 300, 히든 챔피언, 청년 채용 친화 기업 등)
및 고졸 채용 우수 사례 (공모전 등 실시)기업을 라디오 방송 인터
넷을 통해 적극 홍보

-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중소기업 체험 기회 확대 및 담임교사 등 전체 교원의 연수 과정에 중소기업 체험 이해 과정 의무화
- ※ 학생·학부모가 동행하는 직업계고 학생 대상 중소기업 바로 알기 프로그램 (중기부) 추진 등
- 3) 중소기업 인식 조사 중소기업과 학생간 인식 차 해소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의 희망기업 유형, 기대 임금, 전반적 인식 등 조사 발표
- ※ 매년 실시하는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신규 항목으로 포함

3. 취업 후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가. 자산 형성 지원 확대

- 1)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18년 1인당 300만원 → ’19년 24,000명 → ’20년 25,500명 → 단계적 확대)
 ※ 직업교육을 받은 직업교육 및 일반고 위탁과정 1년 학생 선발 지원
 ※ 졸업 후 중소기업 의무 근무 6개월 의무 미 이행시 장려금 반환·환수
- 2)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중소 중견기업 2년 근속 시 1,600만원, 3년 근속 시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정비
 ※ (현재)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 진학 시 유지불가, 야간 사이버는 가능
 → (개선) 근로자 신분 유지 및 임금 수령 + 주간 대학 재학 중인 경우 가입 유지

나. 고졸 근로자 역량 개발 지원 확대

- 1) 중소기업 유급 휴가 훈련 활성화
 중소기업 고졸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최대 2년) 역량개발을 위한 유급 휴가 훈련 지원
 ※ 기간 : 1개월 ~2년 / 규모 : 훈련비·인건비(최저임금 150%), 대체인력 인건비(최저임금 100%)
- 중소기업 유급 휴가 훈련 시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변경 (2019년)

2) 처우개선 노력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결과(학위 취득 등)와 인사고과의 연계성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선정 시 주요 지표로 활용

3) 기업문화 확산 노력

중앙부처, 지자체,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 고졸 근로자 역량개발에 힘쓰는 기업문화 확산

※ 고졸 취업 확대, 과제 추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운영 활성화

다. 고졸 재직자 대학진학(후진학) 지원 강화

1) 학비 지원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통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 시 학비 전액 지원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고졸 재직자가 대학 진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

2) 국립대

국립대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을 확대(2022년 국립대 전체로 확대)

※ 후진학자 전담 과정 학과 : 모집 대상 전원 재직 경력자로 선발, 야간 주말, 온라인 수업 등 운영

3) 4년제

후진학자 전담 과정 운영대학에 대해 대학의 평생학습 체제 지원학습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19년 20개교)

※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비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

4) 전문대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을 신설, 유연한 학사제도 운용 및 지역 내 산업체 근로자 맞춤형 후진학 경로 제공('19년 20개교 선정)

※ 수요 맞춤형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유연화, 지자체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재직자 교육 등('19년 15개교 교당 10억원 지원)

-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지원 사업 대상을 전문대학으로 확대하여 후진학자에 대한 학위 취득 기회 제공 ('19년 6개교)

- P-TECH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제학교 등 고졸 재직자의 직무능력 심화 및 후학습 지원('18년 13개 → '19년 23개)

※ P-TECH :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자 대상으로 융합형 신기술 등 훈련 지원 (전문대 수준)

5)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운영

3년간 취업과 학위 취득을 함께 할 수 있는 후진학 경로인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활성화(2018년 5개교 →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 확대)

※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의 취업 후(입학생 전원 취업), 2년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4.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가.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 1)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계획(2008) 추진
- 2)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 추진
- 3)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2014) 추진
- 4) 중등직업교육 활성화 방안(2023.8.23.)
- 5) 과제별 진행 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이행성과 관리

나. 추진 협의체 구성 운영

고졸 취업 확대 과제 추진 점검을 위한 중등 직업교육 협의체 구성

-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부 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국장 및 직업교육 협의체 참여
-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 협의회 개최
-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진행상황 보고

다.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제 구축

- 시·도교육청에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별도 관리
- ※ 중등 직업교육 예산 확보, 일반고 미진학자 취업역량강화(전입학제 활성화 등)
- ※ 시·도 취업지원센터 운영, 취업지원관 배치,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등
- 시·도교육감협의회(또는 부교육감회의) 등을 통해 협력 요청

라. 홍보 전략 수립 운영

- 사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방안 발표 직후부터 체계적인 홍보 추진
- 방송, 언론기고, SNS, 팟캐스트 등 활용 및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충남 특성화고 운영 발전방안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

충남 특성화고 운영 발전방안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

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공 정 희

해방 이후 줄곧 늘기만 했던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하면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1명, 2023년 합계출산율 0.7명, 3~4년 연속 출산율이 198위로 세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인구감소 완화정책이 아닌 적응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국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들 한다.

출생율이 낮아지면서 당연히 학령인구도 낮아지고 이로 인해 빗꽃 지는 순서로 대학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이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교육환경에서 여전히 진학 기피 대상이 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많은 문제점을 정면에서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남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임수빈 교감 선생님의 기조 발제 내용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점과 발전방안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방안을 이야기할 때 꼭 거론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토론자의 의견을 추가하고자 한다.

1. 특성화고의 문제점

발제자는 특성화고의 문제점으로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 취업률 저조,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문교과 교사의 사기 저하를 말하였다. 모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 중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이나 취업률 저조에 대한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것 같

이 인구절벽 시대에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소규모학교 통합 정책(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이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 취업률 문제도 특성화고 졸업생뿐만 아닌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취업률도 사회문제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의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이나 취업률 저조와 같은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항~제106조의 3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실시하고 있다. 즉, 학교장 전형이다. 또한, 졸업 후 취업을 주목표로하여 3년간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학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이며 이 두 지표는 학교장의 적극적인 학교경영과 교사들의 열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 지표 달성도에 따라 예산 및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등성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기초 발제 내용에서도 제시한 시군별 지역의 학령인구변화추이를 보더라도 신입생 충원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이다. 취업 관련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거대 담론은 대학교육이다. 대학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고졸 취업문화가 일반화되고 있지 않으며 고졸 취업자는 실패자라는 인식이 있고 이것은 고졸 연봉과 대졸 연봉의 차이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 인식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고졸 취업 정책을 국가적으로 장려한다 해도 단순 노동 일자리를 회피하는 학부모나 학생을 설득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두고 있으니 기초 발제에서도 언급했듯이 관련 교사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생활지도, 잦은 학과 개편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2. 특성화고 발전방안

앞에서 발제자는 특성화고 발전방안으로 9가지를 제시하였다.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중 신산업분야 학과개편이나 직업계고 해외현장학습 활성화 관련해서는 충남교육청이 전국적으로 가장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학과개편 현황 참고]

토론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 인식개선

직업교육은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 아니다. 초등교육에서부터 직업과 진로에 대해 접하게 하고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하고 직업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은 미미하고 중학교 역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 직업교육이 없는 진로 교육만 있을 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 중학교 교사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인식은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에, 초, 중학교 교사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연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중학교 진로 교사나 중3 담임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 및 직업교육 관련 이해 연수를 필수로 하는 조례제정이나 관련 정책 수립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2) 직업계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이제 일본과 같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현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경기도, 충남, 경남 등 일부 지역으로 이동), 같은 시도의 경우에도 충북의 경우 청주, 충남의 경우 천안, 전북의 경우 전주 등으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음이 나타난다(양희준 외(2018)). 이는 일부 지방은 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방이 소멸하는 지자체는 존속이 어렵다.

이에, 지자체는 각 지역에 거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더욱 특화하여 그 지역의 인재를 그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장려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자체는 도시로의 진학(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을 독려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정책, 재경 기숙사 정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밖으로 유출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은 낮다. 오히려 지역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고 지역 산업체에 취업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정착금을 지원하거나 지역에서 결혼할 경우 주택마련 지원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하거나 현재 천안과 당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마다 특화한 전략사업을 직업으로 매칭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인재를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산업 정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자치의 영역을 넓혀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시와 지방의 균형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인구감소는 고령화사회를 함께 가져온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출산율 증가, 사망률 증가, 인구이동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출산율 증가나 사망률 증가는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결국 인구이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즉, 이민장려정책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족 이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학자들의 예측이 있다.

이런 현상은 학생 구성현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민으로 유입인구가 늘어나면 다문화나 외국인 학생이 증가할 것이며, 기반산업의 노동력도 외국인 점유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기술습득 교육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특성화고등학교가 나아갈 방향으로 만들어볼 수 있겠다.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교육환경 변화와 활성화 방안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교육환경 변화와 활성화 방안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정 범 모

1.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교육환경의 변화

가. 교육 현장의 변화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군을 재구조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신산업 및 융합 분야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 하여 소프트웨어, 바이오, 에너지, 소방,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등의 기준학과가 신설되는 등 신산업 분야가 많이 반영되었다.
-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술 수명의 단축, 기술변화의 가속성, 관련 산업 발전의 급진성으로 인해 교육과정에 담긴 과목과 내용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교원의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한 산업현장의 요구 수준에 맞는 기술 습득과 교원양성기관의 학교 현장과의 전공 교육 적합도를 높이는 교원양성이 필요하다.
- 특히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에 표시과목이 없는 학과가 대부분이고, 기존 기준학과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기준학과와의 융합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산업 분야의 교원 연수와 교원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된 교원이 배치되기까지는 산업체 우수 강사의 활용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한다.

나.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8대 과제, 교육부)

- 직업계고 내 신산업·신기술 교육 확산 지원
 - 첨단분야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내용, 시설, 진로 지도 등 산업계 컨설팅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학과 재구조화 유도(개선)
 - 기존 전공과 신산업·신기술 전공을 융합하여, 유연하게 교육하는 마이크로 교육과정 도입(신규)
- 교원 재교육 기회 확대
 - 다교과 지도 능력 함양을 위한 부전공(융합전공)·현장직무 연수를 확대하고, 민간 연계 산업체 단기(파견) 연수 기회 제공

- 주기적 현장직무연수 참여를 유도하고, 교원 학습연구년제 요건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연수 기회를 보장

○ 우수한 외부 교수 자원 유치

- 산학겸임교사 대상 교사양성특별과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통 교직 인정과목 개발하고, K-MOOC 등 공통 플랫폼에 탑재
- 산학겸임교사 등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교육감이 개설한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시 정교사 2급 자격증 부여

○ 지역 내 직업계고 역할 확대

- 직업계고 유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지역 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프로그램 운영('24, 10개교 특교 예정)

○ 학교 내 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추진

- '27년까지 100개교 학교 기업 운영 및 학교 내 기업 유치
- 학교 내에서 산학협력(교원활용, 현장실습) 및 취·창업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기업 자체 운영, 학교 내 기업 입주 등 지원 추진(산학협력 특화학교)

다. 산업체의 구성 및 인력 수요 변화(드론 분야)

○ 국내 드론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19	'20	'21	'22	'23	'24	'25	비고
제작시장	656	1,017	1,110	1,263	1,309	1,618	1,952	
활용시장	2,198	3,354	3,661	4,158	4,318	5,362	6,461	
합계	2,854	4,371	4,771	5,421	5,627	6,980	8,424	

○ 한 직무의 대규모 채용에서 → 직무별 소인수 채용으로 변화

산업사회에서는 기업의 한 직무에 대량의 인원을 채용하고, 신입사원 연수를 통하여 기업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키워 인력 양성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IMF 이후 기업의 경비 절감 차원에서 신입사원의 연수는 대폭 축소되었으며,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러한 여력을 갖춘 기업이 부족하여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완성형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책무성이 높아졌다. 또한 학생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담당할 직무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또한 증가되었다.

○ 다양한 분야 직무 능력 보유자 채용

드론 분야는 대부분의 기업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드론 제작, 촬영, 운용, 공간정보, 교육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 채용한 후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작과 운용의 어떤 한 분야 교육이 아닌 멀티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입직단계 전에 해당 직무에 대한 특화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드론 기업의 영세성과 인력수요시장의 미성숙

드론 기업의 95% 이상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평균 종업원 수가 5 ~ 7명 정도인 영세성을 띄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소재지가 경기도, 서울, 인천, 대전 등으로 타지역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활비(방, 식대 등)를 제외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으며, 일정 수준의 경험과 기술 수준이 도달함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군집 드론쇼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근무가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현행 제도로서는 재학생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드론 분야 새로운 직업군 전망('24 예정)

드론을 이용한 시설점검 분야의 직업군을 만들기 위해 직능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즉, 시설점검분야 학생을 일학습병행, 채용 기업의 병역특례업체 지정 지원, 새로운 국가자격증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제안

가. 교원 양성 및 재교육

- 교원 양성기관(사범대학, 교직이수대학)의 전문교과교사 이중전문성 신장
특성화고 교사는 교육학적 전문성과 직업적(기술) 전문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대학교육과정의 적합성을 향상하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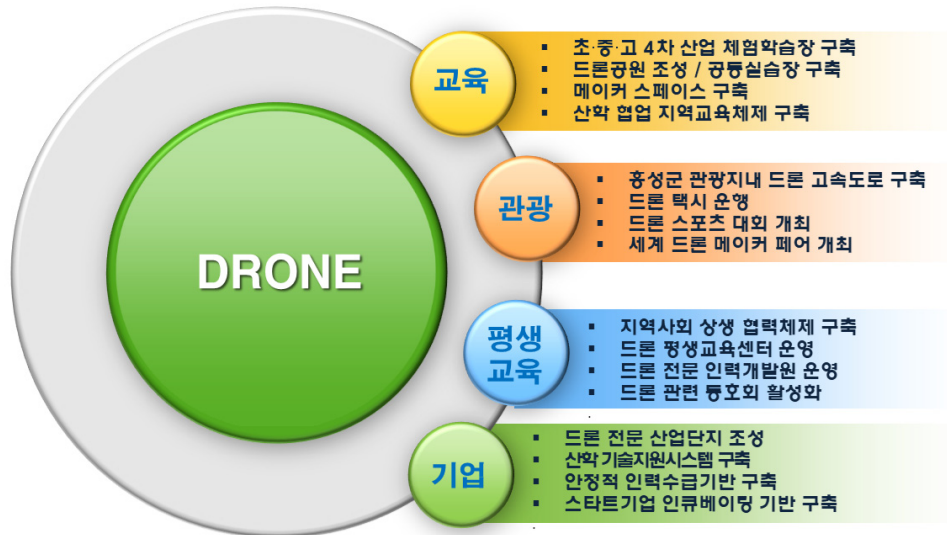
○ 신산업 분야 교원 연수 강화

신산업 분야의 경우 학과개편을 하게 될 경우 최소 3개월 정도의 해당 분야 파견 연수를 통해 직업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주기적인 산업체 기술수준 변화에 따른 재교육이 필요함.

○ 산학겸임교사의 적극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학과개편 관련 표시과목의 교원이 양성되기 전까지는 산학겸임교사를 적극 채용하여 수업에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음. (예산지원, 교원정원 조정 등)

나. 산학협력 특화학교 지정을 통한 지역 연계 직업계고 역할 확대



○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부설 충남드론항공교육원에 유희교실 20개 존재



- 현재 충남드론항공교육원을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의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8대 과제에 의할 경우 유희시설에 기업을 유치하여, 학생들의 교육-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 수 있음.
- 나아가 홍성을 드론 클러스터로 조성할 경우 인구 증가 및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23년 1층 리모델링(9억 4천만원), '24년 실내비행장 주변 및 실외비행장 주변 정리가 예정되어 있음. 이후 재학생 교육 및 주민 'D-Sport'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임.
- 2, 3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지역에 드론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지역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직업교육 모델이 필요함.

다. 전국 유일의 무인 항공기 특성화 고등학교로 학과개편

- 현재 본교는 드론분야 전국 최고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드론 산업계에서는 회전익(현재)과 고정익(UAM)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드론테크과 2개 반' + 'UMA과 1개반'으로 학과개편을 준비하고 있음.
- UMA로 학과 개편할 경우 홍성군의 군유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고정익 비행장을 구축해야 함.

라. 신산업 계열 분리가 필요함

- 신산업 분야는 어떤 특정 분야에 속하기 보다는 여러 계열의 융합이 필요한 학과임.
- 또한 실습재료비 등이 기존의 계열과 달리 책정할 필요가 있음. 즉, 기존학과별 획일적인 실습비 책정과 교부보다는 학과의 특성에 맞는 편셋 지원이 필요함.
- 신산업 분야는 기존의 기준학과에 의한 교원 양정보다는 별도의 계열로 분리하여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This image shows a blank memo template. The central area is white and contains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t the top cent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large, grey, serif font. The corners of the page are decorated with overlapping colored tabs: orange at the top-left, red at the top-right, blue at the bottom-left, and green at the bottom-right.

[illegible]

[illegible]